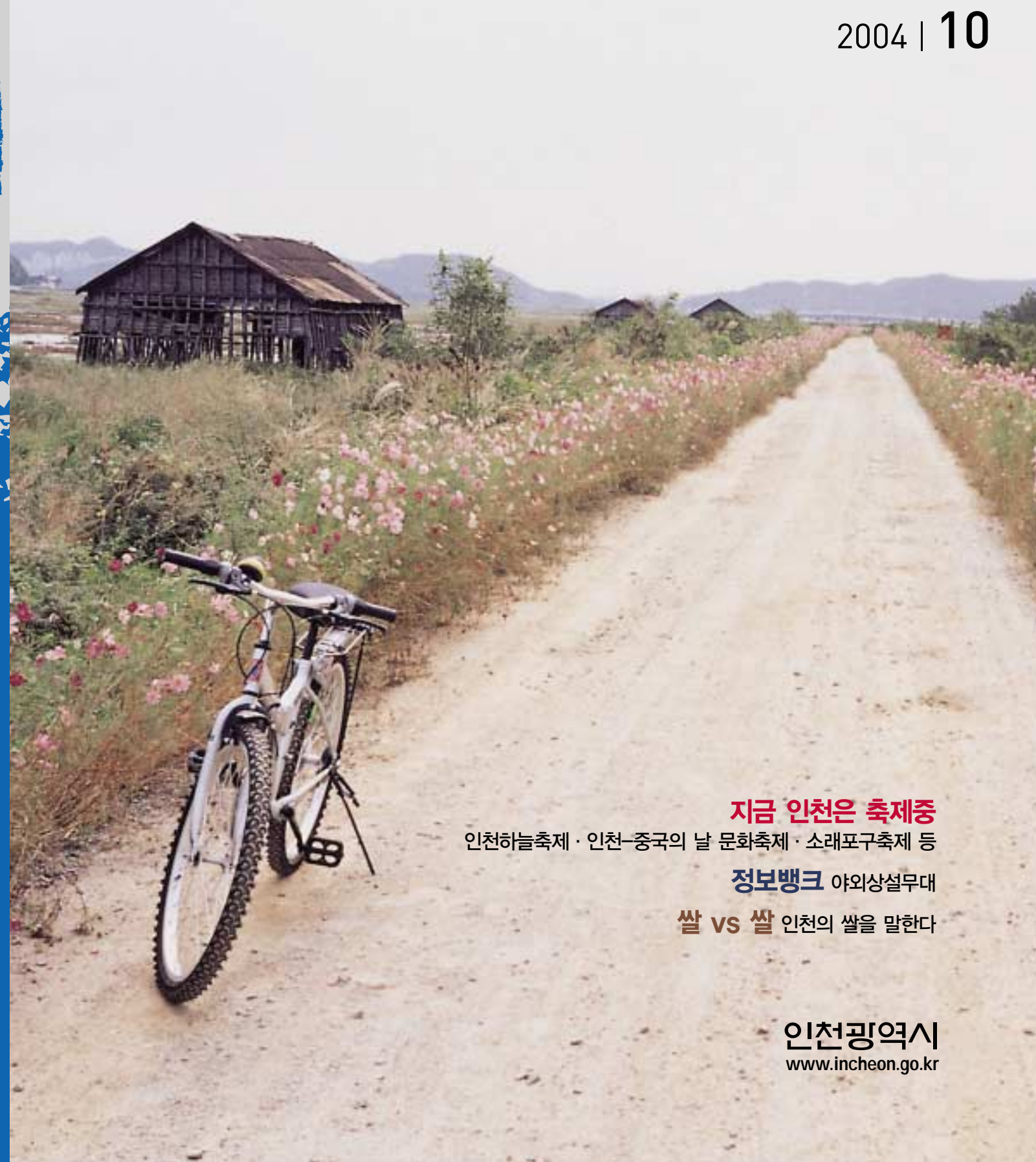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4 | 10



창의적 디자인 - 인천이 열리다

Incheon International Design Fair 2004

2004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주최_인천광역시 / 주관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인천산업디자인협회, 인천디자인전문회사협회 / 후원 (사)한국현대디자인실협회가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국제디자인대학원, (사)디자인전문회사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인천기능대학, 경인여자대학, 가천길대학,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iTV, ICN, CJ케이틀넷북인천방송, 한빛새롬방송

일시_2004.11.1 (월)~4 (목)
장소_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국제회의장
개막식_2004.11.1 (월) 14:00

www.indef.org

지금 인천은 축제중
인천하늘축제 ·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 소래포구축제 등

정보뱅크 야외상설무대

쌀 vs 쌀 인천의 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실천하는 봉사 나누는 기쁨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랑의 기쁨과 보람을 체험하는 현장에 섰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원봉사를 체험한 것.

자발적으로 신청한 100여 명의 시본청과 사업소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도배·장판 교체와 노인 및 장애인 목욕시켜 주기,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및 장애아동 교육보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9월 7일에는 김창섭 정무부시장이 직접 자원봉사에 나섰다. 김 부시장은 공무원 7명과 함께 부평구 산곡동 사회복지시설 '만인의 집'에서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는 자원봉사를 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이번 봉사활동을 정기적인 공무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02窓 2004 | 실천하는 봉사 나누는 기쁨
- 04 인천하늘축제 | 새하늘이 열렸다, 세계로 나가자
- 06 제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 仁川 · 中國 하오하오(好好)
- 10 지금 인천은 축제중 | 각 군 · 구 축제 · 문화축제 이모저모
- 14 in. Stage | 뮤지컬 <심청왕후> 외
- 18 리뷰 | 2004 미추홀 현대무용제
- 19 들여다 보기 | 3D 입체 영상 애니메이션 '유령의 집'
- 20 조명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그 후 1년
- 22 굿인천 굿뉴스 | 제5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외
- 27 의정소식 | 제12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 외
- 28 리포트 | '2004 텐진 한국주간' 행사를 가다
- 30 China in Incheon | 한국산동예술문화원
- 32 정보뱅크 | 야외상설무대
- 36 쌀 vs 쌀 | 인천의 3미(米)를 말한다
- 40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웅진군 시도 <풀하우스>의 바다
- 42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일등샤브칼국수 · 일품
- 43 과거로의 시간여행 | 여보, 나 10월만...
- 44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 · 열번째 사람 | 이상희 아나운서
- 48 청공청해 인천의제 21 뉴스 | 인천 책 독후감 공모 외
- 49 Healthy life | 피임과 여성건강
- 50 독자마당 | 이달의 테마 '운동회'
- 54 Info Box |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외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4.10 (통권 130호)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굿모닝 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발행일자 2004년 10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지영일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공보관실) · 김성환 · 김정식(자유사진가)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 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코스모스가 핀 소리 폐염전 산책로

새하늘이 열렸다 세계로 나가자

Opening the Sky, Connecting the World

10월 15일(금)~17일(일)

인천국제공항 청사 앞 잔디광장, 월미공원, 송도경비행장 등

하늘을 품은 도시 인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우리 인천은 세계의 하늘을 품게 되었다. 하늘은 교통, 물류, 비즈니스의 거대한 장이다. 이 열린 하늘에서 인천시민의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표출하기 위한 축제 마당이 펼쳐진다. 비행기 타고, 하늘 보고...그리고 그 하늘에서 인천을 보자, 세계를 보자.



하늘탐험 별자리여행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너의 별’. 전문가의 지도로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별자리 관측

15일~17일 오후 8시~10시 | 월미도 문화의 거리

비행기타고 체험비행

‘무엇이 보이는가?’ ‘세상이 보인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비행기 탑승체험

15일~17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송도 경비행장

모형비행기 날리기 대회

‘뒹다뒹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내가 만든 비행기의 자유비행, 유선조종, 무선조정 3개 부문 경연의 장

17일 오전 11시~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 하얏트호텔 잔디광장주변

I Love Sky 콘서트

보아, 주얼리, 윤도현, 동방신기, 송창식 등 하늘의 스타들이 총출동

15일 오후 6시30분~8시30분 | 인천국제공항

하늘사랑 나눔장터

해외 여행시 구입한 각국의 특산물을 비롯해 재활용품, 특이상품을 서로 나눠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기금 마련

16일, 17일 오후 1시~5시

16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 17일 인천공항 잔디광장

Sky Plaza

세계풍물존, 세일존, 전시존, 커뮤니티존 등으로 구성되며 항공물류 관련업체의 정보와 상품 제공 및 전시.

15일~17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인천국제공항 잔디광장

국제청소년관광회의

취항도시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관광에 대한 토론 및 문화장벽 해소를 위한 장

15일~17일 오전 10시~오후 4시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

국제스카이 퀸 선발대회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 및 외국항공사 승무원들의 유니폼 룩 패션쇼 및 응모를 통한 퀸 선발대회

17일 오후 3시~4시 | 인천국제공항 잔디광장 메인 무대

(자세한 일정은 본지 56페이지)

제 3 회 인 천 - 중 국 의 날 문 화 축 제 (仁川-中國日 慶典活動)

仁川・中國 하오하오(好好)

10월 8일(금) ~ 10일(일)

인천대공원 · 자유공원 · 청관거리 등

한류열풍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가 KBS의 한중가요제를 시작으로 용춤 · 사자춤 대회, 중국 자매우호 도시의 민속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준비된다. 중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화려한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풍성하게 마련돼 있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그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인천 시민이다.

사진 _ 김성환



시내 곳곳이 흥겨운 잔치마당

10월이면 인천은 축제의 도시가 된다.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즈음해 각 군·구에서는 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등 각종 행사와 축제를 열고 문화 예술 단체들도 앞다투어 풍성한 가을 축제를 펼친다. 덕분에 깊어 가는 가을, 인천시민들은 축제와 함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축제의 자세한 일정은 본지 57·58페이지

물렀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계양산축제

10월 2일(토)~24일(일) | 야외공연장, 경인교대 운동장, 부평초등학교 등

계양산 인근에는 부평도호부청사, 부평향교 등이 남아 있고 부평도호부에는 욱은지, 어사대 등의 문화재가 있다. 정조대왕은 1797년(정조 21) 8월 15일에 장릉 전배를 마치고 16일에 김포행궁을 떠나 부평부에 들렀다. 또 김포 장릉에 행차하여 제사를 지내고 가는 도중 계양구에 있는 어사대에서 활을 쏘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번 축제에는 정조대왕의 어가행렬을 재연하는 행사가 펼쳐져 전통의 향기를 느껴볼 수 있다. 10월 9일 열리는 정조대왕 어가행렬 재연 행사는 야외공연장에서 부평도호부청사를 잇는 약 2.9km의 거리를 계양고교 학생, 서울여상 취타대 등이 참여해 옛 모습 그대로 재연해 장관을 이룬다. 어가행렬에 이어 부평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활쏘기 시연, 민정극 공연, 국악 한마당 등 전통 공연이 이어진다. 이밖에도 10월 4일의 젊음의 음악축제에는 터보의 김종국, 이수영 등 신세대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고 부대행사로 구민노래자랑, 인라인스케이트대회, 계양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계양미술협회 도자기 체험마당, 계양심포니오케스트라 가을맞이 정기연주회 등 푸짐한 행사가 마련된다.

문의 계양구 (450-5114)



너랑! 나랑! 우리랑! 랑랑!

2004 랑랑 페스티벌

10월 9일(토)~10일(일) | 원적산길(건지사거리~진주사거리)

인천국제공항의 길목,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등이 있는 서구에서 '2004 랑랑 페스티벌'이 열린다. '너랑 나랑 우리랑 아리랑 랑랑 즐겁게 춤추자'는 타이틀로 열리는 올해 랑랑 페스티벌은 거리문화축제와 춤퍼레이드축제가 어우러진다. 15개 동사무소팀과 어린이, 동아리 등 경연대상 20개 팀, 자율참가팀 등 60여 팀이 참가해 숨씨를 뽐내는 것. 행사는 크게 거리홍보공연과 본행사, 부대행사로 나뉘어 열린다. 10월 9일 행사 첫날에는 오후 7시부터 행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랑랑축제를 홍보하는 거리공연이 전야제로 열린다. 세 개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팀이 풍물팀을 앞세워 거리를 돌면서 흥겨운 잔치분위기를 띄운다. 이튿날 열리는 본행사의 꽃은 퍼레이드. 진주사거리, 고려의원, 건지사거리의 코스에서 각 팀들이 퍼레이드를 펼친다. 축제기간 내내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체험행사로 서구의 갯벌을 직접 옮겨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페이스페인팅, 패션페인팅, 알공예, 목공예, 벼룩시장 등이 열려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이다.

문의 서구 축제추진위원회 (560-4343 www.rangrang.or.kr)



바다내음은 솔솔~ 어깨춤은 덩실

연안어시장축제

10월 9일(토) | 연안어시장 입구 특설무대

인천사람이라도 바다가 보고 싶거나, 싱싱한 횡감이 생각나면 훌쩍 찾는 곳 연안부두. 그곳엔 비릿한 바다내음과 함께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연안부두에서 1년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내년의 희망을 주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 형식의 연안어시장 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세경돌이로 시작된다. 일년의 풍어를 비는 마음을 담아 어시장을 도는 의례식이다. 이어 특설무대에서 서해안풍어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대동굿, 배연산굿, 작두타기 공연 등 서해안풍어제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오후 시간은 여러 나라의 무속공연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범패공연이 열리고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의 샤머니 공연이 준비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장어달리기, 바지락빨리까기, 얼음위에 오래 서 있기 등 재밌고도 연안어시장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참여행사가 열린다.

문의 중구 문화체육팀 (760-7133), 연안어시장축제추진위원회 (888-4241)



바다로, 포구로, 소래로

소래포구축제

10월 12일(화)~15일(금) | 소래포구

매년 관광객 300만 명이 찾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 명소 소래포구에서 ‘바다로, 포구로, 소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특히 아줌마들을 위한 축제로 준비됐다. ‘아줌마 퍼포먼스 페스티벌’은 남편 걱정, 자식걱정에 마음 졸이고, 하루 종일 집안일에 치이는 우리 아줌마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할 열린 무대다. 소래포구 축제의 대표 행사가 된 ‘소래포구 아줌마 선발대회’는 국내외에 인천소래포구를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로 활동할 대표 아줌마들의 잔치마당이다. 소래의 가장 큰 자량은 역시 신선한 수산물을 즉석에서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것. 소래포구의 명품 생새우젓, 웰빙 천일염 등이 축제기간동안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가격에 깜짝 경매로 판매되고 상시 할인행사로 김장철 인기절정의 소래 생새우젓 20%, 제철맞은 싱싱한 수산물은 10%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행사장 곳곳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산물 이벤트행사’도 눈요기 거리. 새우젓 높이 쌓기, 장어 이어달리기, 바지락까기 대회 등 이벤트 행사에 참가하면 마음 한가득 즐거움과 두 손 한가득 상품을 들고 돌아갈 수 있다. 또한 하루 동안 소래포구 인근에서 생태체험과 함께 축제 구경도 하는 ‘엄마랑 아이랑 함께 하는 생태체험’도 기다리고 있다. 축제 행사장에는 유아놀이존이 마련돼 아줌마들이 아이를 맡기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문의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 (423-1901 www.soraefestival.com)



인천 대표 관광지 월미도야 반갑다~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10월 29일(금)~31일(일) | 월미도

‘인천’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대표 관광지 월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월미관광특구에서 화려한 축제가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크게 공연마당, 체험마당, 이벤트마당, 전시·상설마당, 먹거리마당으로 구분돼 다양하게 열린다. ‘세계민속공연’에서 러시아, 콜롬비아, 브라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팀들이 각 나라의 전통춤, 전통악기, 전통음악 등을 선보인다. ‘힙합 공연 및 치어리더 공연’은 전문 힙합팀이 우리가락을 힙합으로 접목하는 색다른 공연을 보여주고 농구장이나 야구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치어리더팀의 공연도 활기차게 진행된다. 중국기예단의 공연도 볼거리. 우리시와 자매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도시의 공연 팀을 초청해 화려한 쇼를 진행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탈복자들로 이루어진 공연팀의 ‘북한예술단공연’은 관광객들이 북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유진박, 70·80 라이브공연으로 구성되는 ‘연주와 라이브 공연’또한 놓쳐서는 안 될 행사다. 이밖에도 째즈사이저 공연 및 마칭밴드 공연, 마술쇼, 난타 및 대북 공연, 음악과 춤의 조화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된다. 이벤트마당에서는 페이스페인팅, 맥주빨리마시기, 옛날옛적에 사진찍기, 어린이 인형극 및 마당극, 뽀에로 요술풍선 등의 행사가 수시로 열려 축제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또 환경사진전, 그림 및 시화전 등이 월미도문화의 거리 주변을 장식해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에 걸맞는 축제의 모습을 완성시킬 것이다.

문의 중구 문화체육팀 (760-7133)



강화 국화전시회

10월 29일(금)~ 11월 2일(화) | 강화 문예회관 일대

가을의 상징 국화. 일년 동안 정성껏 가꾼 국화꽃 전시회가 강화를 강화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100여 종의 국화 600여 분이 한자리에 선을 보이는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는 국화는 전문가의 작품이 아니라 국화에 취미를 갖고 있는 동호회원들이 재배한 것이라 호화롭고 화려하지는 않다. 하지만 소박한 농심이 깃들어 있는 작품이라 더 친근하다. 전시된 작품을 관객이 원할 경우 할인 판매하고 재배 방법도 지도해 줄 계획이다. 부대 행사로 수석 및 난, 야생화, 분재전시와 야생화 사진전, 완초 공예 시연, 도자기에 국화 그려넣기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린다.

문의 강화문예회관 (933-8016)



문화축제 이모저모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10월 5일(수)~10일(일)

인천여성의광장, 학산소극장, 시민의공원, 각 초·중등학교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는 소극장 돌체 극단 마임(대표 박상숙)과 인천클라운마임협의회(회장 최규호)가 한국, 네덜란드, 인도, 일본, 프랑스 등 세계 5개국의 프로 마임 아티스트들과 클라운마임 아티스트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행사다. 올해의 슬로건은 ‘Clown 路 - Dreaming Road’. 클라운마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큰 감동의 무대를 전해주기 위해 꿈의 길, 클라운 마임과 함께하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계 5개 나라에서 11개 팀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독특한 색깔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펼쳐 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각 초·중등학교를 방문하는 공연과 거리공연, 스페셜 초청공연, 무대공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열려 여러 장소에서 인천의 관객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문의 인천국제클라운마임 축제사무국
(772-7361, www.clownmime.co.kr)

사랑의 인형극 축제

10월 19일(화) ~ 11월 11일(목)

인천대공원, 계양문화회관, 서구문화회관, 연수구청 대강당 등

보물상자 등 우리지역의 극단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등 17개 극단으로 구성된 한국인형극예술가협회가 사랑의 연극축제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아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완치 환경을 지원하고 순수한 공연문화를 접하게 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공연을 마련한 것이다.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축제인 만큼 행사도 마임, 저글링, 매직쇼, 인형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진다. 특히 10월 23일에는 인천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막행사로 마술, 저글링, 뮤지컬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문의 한국인형극예술가협회 (504-4339)

노동문화제

10월 6일(수) ~ 10일(일) | 부평공원, 서구문화회관 전시관



열일곱 번째 맞는 인천노동문화제가 다양한 형식의 문화제로 진행된다. 노래공연으로 인천지역 노동자 문화패, 박준, 꽃다지 등이 출연하는 ‘노동하는 기타’가 공연되고 인천지역 노동자문화패의 연합공연과 노동가수와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노동연극제 ‘민중다시래기’는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꽃등 들어 님 오시면’과 1인극 ‘호랑이 이야기’, 워크샵 발표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2004 노동미술굿으로 사이버전시(www.ilcf.co.kr)가 10월 한달 내내 이뤄지고 토론회와 노동미술 작가전, 대중참여 기획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풍물대동궁 한마당, 열린영화제, 거리공연, 사이버 영상콘서트, 체험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문의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446-8479 www.ilcf.co.kr)

제물포 종합예술제

10월 23일(토) ~ 24일(일) | 수봉문화회관 일대



예종 산하의 국악, 음악, 연예, 연극, 사진, 문인, 미술, 무용 등 8개 협회와 특별회원 단체인 댄스스포츠 협회가 주관해 각 협회별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을 공연과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스물두 번째 제물포예술제가 열린다. 국악협회의 ‘신명나는 우리 국악’, 음악협회 ‘클래식공연’, 연예협회 ‘인천시민가요제’, 연극협회 ‘마당놀이’ ‘마임공연’, 사진협회 ‘인천문화예술사진전’ ‘영정사진찍어주기’, 문인협회 ‘문학의 밤’, 미술협회 ‘회원전’ ‘가훈 써주기’, 무용협회 ‘창작무용발표회’, 댄스스포츠협회 ‘창작댄스스포츠공연’ 등이다. 아울러 축하공연으로 페루 공연팀과 가을밤 숲속 음악회가 열리고 시민 참여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문의 (사)인천예총 (866-2019)

뮤 지 컬 심청왕후

제40회 인천시민의 날 및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공연작품으로 뮤지컬 <심청왕후>가 무대에 오른다. 시립 극단·합창단·무용단·교향악단 등 4개 예술단의 합동공연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있겠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공연해 왔던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때 형식이나 규모면에서 차별성을 지닌 작품이다. 2관으로 편성된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연주하고 50명 가까운 합창단이 무대에서 춤추고 연기를 하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 뮤지컬계에서 드문 일이다. 또한 40여명의 무용단이 보여주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무용 역시 민간 오페라단이나 뮤지컬단이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며 한국적 풍자와 해학을 곁들인 감동적인 극단의 연기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준다.

특히 주인공 심청역은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열연한 소프라노 김원정 씨가 맡아 눈길을 끈다.

일시 _ 10월 15일 ~ 17일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무료 (1일 1,524명 선착순 입장)

문의 _ 420 - 2765



‘T i m’ 두 번째 콘서트

Second Breath

Tim의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사랑합니다’는 작년 한해 가장 많이 불린 노래로 지난해 말 방송횟수 통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더욱 완성도가 높아진 2집 음반 ‘Second Breath’의 발매와 함께 타이틀곡 ‘고마웠다고’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Tim이 이 가을에 인천 팬을 만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Temple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행을 결정한 Tim, 성악, 지휘, 알토 색소폰, 건반, 드럼 등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그는 아시아 가수로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에 초대받아 한국 음악을 널리 알릴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일시 _ 10월 24일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서구문화회관

티켓 _ R석 50,000원 S석 35,000원

문의 _ 하늘기획 (1544-5954, 322-9678)



장 두 이 모 노 극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

학산소극장의 개관 첫 작품으로 장두이의 모노극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가 무대에 오른다. 아프리카 해안 정글에서 사랑하는 애인과 놀고 있던 원숭이가 밀렵꾼의 총에 맞아 생포된다. 열굴과 엉덩이에 총을 맞은 원숭이는 한 달이 넘게 배안 철창에 갇혀 인간세계로 오게 된다. 유난히 엉덩이가 빨강고 해안에서 잡혔다고 ‘피터 (성경의 베드로)’라고 이름지어진 원숭이는 철창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생각과 관찰을 시작한다. 원숭이는 ‘인간으로 되어야만 자유와 탈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믿는다. 그러던 중 인간들에 의해, 몸에 난 털을 제거당하고 말, 춤, 노래, 연기를 배우는 등 10여 년 각고의 세월 속에 서커스단에서 대성공을 이루게 되는데...

일시 _ 10월 8일 ~ 17일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4시, 7시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일반 15,000원 학생 10,000원 (문화원회원 - 일반 10,000원, 학생 7,000원)

예매 및 문의 _ 학산문화원 (881-3993 www.haksanculture.or.kr) / 인터파크 (1544-1555)



가 족 뮤 지 컬

춤추는 모자

최고의 무용가가 되고 싶은 하늘이. 그러나 자신의 능력보다 무리한 동작을 선보이다 다리를 다쳐 무용가가 되고 싶은 자신의 꿈(모자)을 버리게 된다. 하늘이는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무료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다가 가게 되는 곳이 여러 사람들의 꿈(모자)이 버려져 있는 곳, 바로 모자 폐기장이다. 모자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건 사람 뿐인데 이곳은 버려진 모자들뿐이다. 이곳에서부터 하늘이의 환상여행은 시작된다.

일시 _ 10월 19일 ~ 25일

평일 오후 3시, 5시, 주말 오후 2시, 4시 (단체관람 11시)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어린이 6,000원 (문화원회원-일반 7,000원, 어린이 4,000원)

문의 _ 학산문화원 (881-3993

www.haksanculture.or.kr)

예매처 _ 인터파크 (1544-1555)



INDABI 2004

인천국제무용소품전



푸른 바다와 춤의 열정이 함께 하는 살아 있는 도시, 인천에서 무용을 통해 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다.

김현숙현대무용단을 비롯해 김준규와 포즈댄스프로젝트(한국), Katherine Joséphau(프랑스), Shizuku(일본), Linda Lehovec(미국) 등이 참가하는 ‘INDABI 2004’는 인천 무용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무대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_ 10월 27일 28일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30,000원 S석 20,000만원 A석 10,000만원 (20매 이상 단체20%할인)

예매처 _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1588-7890)

문의 _ 김현숙현대무용단 (760-8862, 017-342-1162)

가 족 뮤 지 컬

심청



우리에게 친숙한 고전 심청전의 이야기에 전통 타악의 흥겨움과 현대적 감각의 춤이 함

께 어우러져 극적인 재미와 흥미를 더한 새로운 감각의 뮤지컬이다.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가족 간에 공연예술에 대한 공감과 대화를 이끌어내고,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전통에 대한 친숙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시 _ 10월 14일 ~ 17일

평일 오전 9시40분, 11시, 오후 2시

주말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 서구문화회관

티켓 _ R석 15,000원 S석 12,000원 A석 10,000원

문의 _ (02) 715-6905, 702-7013



부평문화사랑방 가을 금요상설무대

9월부터 시작한 부평문화사랑방 금요상설무대가 풍성한 계절 10월을 맞아해 보다 다채로운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10월 8일 <미추홀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5일에는 국내 마임의 대부 최규호의 <최규호의 클라운 마임> 공연, 그리고 10월 22일에는 국내 발리댄스의 1세대 김대은의 화려한 발리댄스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금요상설무대인 10월 29일에는 그동안 금요상설무대와 함께 진행되었던 컬처케이션의 시상식과 함께 다채로운 특별무대가 준비될 예정이다.

공연일시	공연주제	공연팀
10. 8(금) 19:00	요들송	미추홀 어린이요들단
10. 15(금) 19:00	클라운 마임	최규호의 클라운마임
10. 22(금) 19:00	발리댄스	김대은의 발리댄스
10. 29(금) 19:00	특별무대	퓨전국악, 인디밴드

※공연내용은 공연장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사무소 3층)

티켓 _ 무료공연(선착순 입장)

문의 _ 505-5995
www.bpsc.or.kr

미추홀 어린이요들단 연주회

알프스산맥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중북부 지역, 오스트리아 북서부지역에 전 파된 맑고 순수한 음악 요들. 미추홀 어린이요들단의 맑고 청아한 합창·중창·독창 요들송과 더불어 우리가 좀처럼 대하기 어려운 카우벨 연주를 볼 수 있는 무대이다. 인천예총 미추홀 어린이요들단은 지난해 3월에 창단돼 사회문화 봉사활동과 음악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일시 _ 10월 23일 오후 4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초대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765-0220)



컬투 2004 Gag Concert

TV를 통해선 공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의 고작 10%밖에 못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하는 두 남자, 정찬우와 김태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그들로 인해 배꼽을 잡고 박수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

TV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그들의 개그는 오히려 예전보다 깔끔하고 수준 높은 개그와 입담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다. SBS라디오 러브 FM ‘컬투의 두시탈출’ DJ를 맡으면서 특유의 자연스런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을 라디오 앞으로 모이게 하며 이미 상당수의 팬을 확보하고 있다.

일시 _ 10월 10일 오후 3시30분 6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45,000원 S석(2층) 35,000원 **예매처** _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 1588-7890)
문의 _ 창라이프 (433-6070)



인 형 극 돌리와 마술썸

21세기 돌리가 마술사와 함께 찾아왔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돌리는 악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마이클을 멋지게 구출해 낸다. 사랑극단 ‘꼬마세상’은 돌리를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동시에 마술사를 등장시켜 재미와 예술적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자 인형극 〈돌리와 마술썸〉을 무대에 올린다.

일시 _ 10월 29일 오전 10시40분, 오후 11시20분 / 30일 오후2시, 3시10분, 4시20분
장소 _ 여성의 광장 대공연장 (동춘동 차량등록사업소 내)
티켓 _ 6,000원 4,000원 **문의** _ 극단 꼬마세상 (572-4281, 016-2500-560)

새 책 | 조우성의 〈인천이야기 100장면〉



〈인천이야기 100장면〉을 읽으면 왜 ‘인천 최초는 한국 최초’라는 등식이 성립하는지 금방 알게 된다. 향토 사학자이자 현직 국어교사인 저자는 이 책에서 원조 사이다 이야기,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의 양탕국(커피) 이야기 등 서양문물의 도입지 인천의 근·현대 모습 100장면을 희귀사진과 자료 등을 이용해 조목조목 재미있게 풀어간다.

이와 더불어 〈인천이야기 100장면〉은 개화기 이후 인천을 품이했던 인물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 양무호의 함장 신순성, 한국 미술사학의 원류 우현 고유섭, 맹인들의 세종대왕 박두성, 불운의 정치가 죽산 조봉암 등 인천 출신 인물들의 면모를 소개하고 있다.

첫장을 여는 순간, 책 읽는 이를 ‘타임머신’에 태워 바로 과거의 현장을 거닐게 하는 이 책은 저자가 4년여 동안 조선일보에 ‘인천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연재했던 글 중에서 골라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이들 이야기는 100회를 넘기는 동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향토사학계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우성씨는 그동안 〈간추린 인천사〉, 〈월미도 이야기〉 등 인천을 담은 서적과 시집 〈소리를 테마로 한 세편의 시〉를 출간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행	화	수	목	금	토	
10월 10일	4		5 빅몬오케스트라 공연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천원 011-343-1651 창작판소리극 <동백리> 오후 4시, 7시30분 개양문화관공연장 무료	6 제4회 월미음악대축제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만원, 5천원 876-8646 노래하는 선생님들 창단연주회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대 / 821-0431 무용극<아버지의 작업복> 오후 7시 / 서구문화회관 / 1만원 583-2361	7 제4회 월미음악대축제 (~8)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876-8646	8 발립무용단 <천상의 노래> 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 011-310-6500 창독이 모노극 <솔추는 원숭이 빨간 피타> 오후 7시30분 주말 4시, 7시 학산소극장 / 1만5천원, 1만원 881-3993	9 제22회 인천합창제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876-8646 인하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6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017-533-0550
	10 컬투개그콘서트 오후 3시30분, 6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만5천원, 3만5천원 433-6070 모임활동양성반 연주회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888-0808		12 제15회 부평구여성합창단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509-6113	13 인천Full Lips Flute 정기연주회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017-204-6431	14	15 뮤지컬 <심정왕후> (~17) 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초대 / 420-2765 기동극 옹니버스 미술 <매직버스>(~17) 15일 오전 11시 16일, 17일 오후 2시,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원, 할인 8천원 813-8040	16 부평창작양성제 오후 6시 신포리공원 무료
17일	17 부평문화원 청소년축제 오후 2시 부평문화원 무료	18	19 인천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875-9939 진흥예술종합공연 오후 6시 서구문화회관 / 초대 583-2361 가족뮤지컬 <솔추는 모자> 평일 오후 3시, 5시 주말 2시, 4시 학산소극장 / 1만원, 6천원 / 881-3993	20 미추홀국악단 <우리소리 대축제>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7천원, 4천원 518-1511	21 한국가독인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천원 464-2550	22 새얼 <기과과 아리아의 밤>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885-3611 인천전문대무용과 졸업발표회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료 760-8858	23 미추홀 어린이요들단 정기연주회 오후 4시,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765-0220
24일	24 인천새소풍양성반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만원, 7천원, 5천원 017-327-2401 Tim콘서트 오후 3시, 7시 / 서구문화회관 R석5만 S석4만 A석3만 583-2361	25	26	27 김현숙무용단 <인천국제무용소풍전> (~28)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만, 2만, 1만 760-8862	28 	29 창대인보지시샘예술제 <우리는 한얼을 한마음> 오후 2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 881-5301 인천음악협회 <기과과 아리아의 밤>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 876-8646	30 영리창양성교단 <천양대축제>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 469-8004 적십자어린이 <다솜예술제> 오후 3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 810-1321
31일	31 에피타니노소풍예술반 정기연주회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422-2310	전지안내 2004노동미술전시회 1월~10월 서구문화회관 전시실 이정선 한국화전 5월~10월 신세계갤러리 인천 하와이 국제미술교류전 8월~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 김미란 개인전 8월~14일 갤러리 진	인천공예인형회 회원전 8월~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광역시 학생서예대전 9월~15일 수봉문화회관 전시실 환경관련 포스터 전시회 11월~16일 부평구청 미술전시관 제20회 수석전시회 15월~2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신우회전 15월~21일 갤러리 진	2004울스큐라사진영상전시회 15월~2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인천교원사진연구회 회원전 16월~21일 수봉문화회관 전시실 인천사진동호회 회원작품전 22월~2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사은애 작품전 22월~1월2일 신세계갤러리 유영성 초대전 22월~28일 갤러리 진	2004울스큐라사진영상전시회 15월~2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인천교원사진연구회 회원전 16월~21일 수봉문화회관 전시실 인천사진동호회 회원작품전 22월~2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사은애 작품전 22월~1월2일 신세계갤러리 유영성 초대전 22월~28일 갤러리 진	인천사진작가협회 회원전 22월~2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홍시모 작업전 22월~2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2004 인천국제디자인페어 29월~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소·중앙전시실 김재열 초대전 29월~11월4일 갤러리 진	

※ 공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비속의 질퍽한 춤 공연

가을을 재촉하는 비를 맞으며 서둘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으로 향했다. 아마도 오늘 공연은 일요일 오후인 데다 비가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 보니 한국무용협회 인천지회 행사는 일요일의 비와 악연이 있는 듯하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제24회 인천 춤길’에서도 새벽부터 비가 쏟아졌고 작년 야외공연도 비가 와서 공연을 30분 정도 앞당기는 바람에 정시에 도착한 사람은 줄지에 뒷부분밖에 볼 수 없었다. 우천시 대비 없이 즉석에서 시간을 변경한 아쉬움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황당하고 다소 허무하기 까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앞당겨 공연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1부의 프로그램을 보니 9월초에 공연을 했던 최경희 무용단의 ‘산화가’, 2부에는 역시 9월 초에 공연한 VIBE 무용단의 ‘숨쉬기와 숨 헤아리기’가 거듭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관객의 입장을 배려해서 행사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프로그램에 있는 최경희 무용단과 바이브 무용단의 공연은 9월 초 인천시가 후원한 공연이기도 하다. 시가 후원한다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을 쓴다는 뜻이며 시민의 세금이 바로 그것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 일정이 연기되는 것쯤은 ‘문화향유자’인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라고 본다. 물론 천재지변에 의한 교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공연이 단지 가까운 지인들 공연자들 그리고 문화 단체만을 위한 행사, 그래서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매달 공연 일정표가 나오면 유독 무용쪽으로 눈길이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몸짓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현대무용은 고무줄 같이 끈끈한 기의 흐름을 눈으로 확연히 느낄 수 있고, 처음엔 무엇을 의미하는 몸짓인지 알 수 없지만 볼수록 빠져드는 추상적인 모습에 매력이 있다.

‘미추홀 현대무용제’가 무엇일까. 무엇을 의도하고 기획한 무용제인지 궁금한 마음을 안고 공연장을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삼삼오오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공연 도중에 공연장을 빠져 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출연자들 역시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닐까?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무용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소수이고 수행평가에 얽매어 마지못해 공연장을 찾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관람객이 학생이라면, 관람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공연 시작하기 전에 감상 및 태도 그리고 간략한 공연 내용과 무용을 해서 좋은 점 등을 알려준다면 어떨까?

한국무용의 경우는 관객들의 대부분이 춤 마니아들이 많아 굳이 인원 동원을 하지 않아도 공연날짜를 기억하고 공연장을 찾는 이가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엔 지인들이나 관계자가 대부분일 경우도 있지만, 시립무용단의 ‘춤마당 흥마당’의 경우엔 숨을 죽이고 춤추는 이와 함께 호흡을 놓치지 않으려는 관객들의 열정적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현대무용제’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무용수들의 호흡이 맞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무대가 마치 연습장처럼 되어버린 느낌... 비 오는 일요일 저녁에 공연장을 찾은 나의 마음은 쓸쓸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9월 24일 오후 7시에 인천시와 인천예총이 후원하는 김경숙 현대무용단의 젊은 신인전과 꿈나무 춤꾼전인 ‘자연과 춤’ 공연에 기대감을 갖고 다시 공연장을 찾을 것이다.

글 _ 한정하 (문화예술공연 모니터)

‘와우~, 박쥐 떼의 습격이다!’ 용감한 우리의 짜릿하고 괴기스런 모험



오리는 용감했다. 동네 사람들도 감히 가까이 갈 엄두를 못내는 ‘유령의 집’에 겁도 없이 발을 들여 놓다니. 발신인 표시도 없는 편지 한통을 전달하기 위해. 그 후 약 12분간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편안한 관객으로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바람에 펄럭이는 커튼, 흥측한 거미의 공중그네타기, 갑작스레 떼로 나타난 흡혈 박쥐의 공격 등으로 마치 관객이 만화 속 주인공이 되어 모험을 감행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손에 잡힐 듯 아른거리고 관객에게 괴기스러움을 한껏 뽐어내는 듯 하다.

‘유령의 집’ 3D 입체 애니메이션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섬세하면서도 짜릿한 충격을 선물한다. ‘유령의 집’을 다 보고 나서는 만화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잘 꾸며진 미니어처들의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 본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 세부묘사와 박진감 넘치는 구성에 시사회 관객의 한 사람은 “역시 잘 만들었다”며 “특히 튀어나오는 상황이 압권”이라고 극찬했다.

(주)아인픽처스(대표 최영민)가 선보인 3번 째 작품 ‘유령의 집’은 인천의 3D 입체 영상기술의 위상과 기술력을 한층 높여줄 중요한 성과물이다. 지난 99년 8월 설립되어 5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중견 벤처기업으로 농익은 노하우의 성과겠지만 입체 영상의 원천기술개발이라든가, 입체 모니터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피땀이 배어 있다.

최영민 사장은 “입체 영상기술은 시간, 기법, 인원, 비용 면에서 다른 영상기술보다 많은 수고와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영상물이 범람하는 요즘의 상황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질 높은 입체 영상물의 국산화와 월등한 품질로 그들과 승부를 겨룰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 6월 제28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세암’의 제작사 ‘마고21’ 등 2~3개사가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직 환경적으로 열악한 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성과만은 알차서 아인픽처스는 ‘Space Restor’, ‘Deep Sea Restor’와 이번 작품까지 모두 3편의 입체 애니메이션을 출품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업체가 ‘2003 인천디지털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인 인천시장상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시가 IT산업의 핵심축으로 구상하고 있는 송도신도시의 경우 도시 전체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구축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영상 및 VR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은 물론 영상관련 기술과 콘텐츠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전의진 원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D 영상 기술관련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91억여원 규모의 과학기술부 국책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아인픽처스’와 같은 중견 지역업체가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아인픽처스(www.einpictures.co.kr/434-0861~3)

글 _ 지영일

이제 ‘송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다시 한번 인천의 비상을 환호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의 첫 삽을 뜬지 1년이 지났다. 세계속의 인천, 한국의 심장부 인천의 시작점을 찍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탄생 1주년 기념일이 바로 이달 15일이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그간 우리의 활동은 우선 송도지구 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 분야와 투자유치 활동, 조직 정비 및 강화의 맥락으로 깊어 볼 수 있다”며 “인천의 면모는 물론 국가적 명운을 결정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사실 전국 최초로 인천의 영종지구, 송도지구, 청라지구를 한데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든다고 할 때는 대부분 ‘그게 뭔데?’ 하는 분위기였다. 이름도 낯선데다 그것이 인천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과 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관세나 국내규제를 대폭 풀어준 특별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덩달아서 그 지역의 경제는 물론 국가 차원의 경제가 좋아지게 된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새로운 산업거점 지역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인천의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물류관광·레저의 기능도시로 개발된다. 아울러 송도지구는 동북아의 IT, BT, R&D 허브단지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제 비즈니스의 핵심기지로 탈바꿈한다. 청라지구는 관광·레저시설 및 테마파크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과 수도권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역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것이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매립지 3개 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타켓기업 선정-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전략적인 해외 IR활동’으로 이어지는 투자유치 3단계 핵심전략을 구축하고 조직과 인력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오는 2008년 1단계 사업 완성을 위한 숨고르기 작업들을 숨가쁘게 추진해왔다.

동북아 물류중심을 말하면서 인천항과 공항, 내륙 교통망을 뺄다면 매우 섭섭한 일. 이를 등에 업고 전 세계 특송 및 항공물류기업 ‘빅4’ 가운데 DHL, TNT, FedEx 등 3개사가 2006년부터 우리의 품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또 왕성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담에서 투자유치까지 전 과정을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전담하는 ‘PM(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인센티브 관련 법령개정’도 앞당길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담당관실 김재범씨는 “인천의 경우 공항 등 접근성이 좋고 배후지가 발달한 점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도 여건상 매우 유리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상징하는 인천으로의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여름의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오후 시간, 송도1교를 지나자마자 눈앞에 들어온 송도매립지의 풍경은 예전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사뭇 첨단 신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다. 각종 첨단건물과 시설, 아파트 단지의 건설이 한창인 이곳이 경제의 중심,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곳임이 분명했다. 벌써부터 인천의 날개짓과 비상의 기류가 감지된다. 오늘도 이렇게 인천 역사의 한 획이 그려지고 있다.

글 _ 지영일

총 24조원의 투자액이 몰려온다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국 자본, 기업, 우수 인력을 얼마만큼이나 끌어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를 위한 당사자간 양해각서(MOU) 체결 건수가 현재까지 모두 7건에 약 24조원대 규모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의향서 접수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 MS, HP, SUN 및 삼성 등 총 7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위해 약 10억불, 미 Bonanza사에서 제조 및 R&D센터, 유방암 스크린센터 등에 약 4,000만불이라는 자본을 투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투자와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들 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인천의 문을 노크하는 것은 인천의 입지 조건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평가한 결과로 보여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자취 · 성과

- 1999년 9월 9일
영국 AMEC사와 제2연륙교 건설 관련 양해각서 체결 (1조 300억원 규모)
- 2001년 7월 27일
미국 Gale사와 국제비즈니스센터 관련 양해각서 체결 (약 15조원 규모)
- 2001년 10월 19일
영국 Vaxgen사와 첨단바이오시설 개발 관련 양해각서 체결 (1천 800억원 규모)
- 2003년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남동구 만수동)
- 2004년 3월 9일~12일
세계 부동산 박람회(MIPM 2004) 참가, 홍보
- 2004년 3월 31일
한국중화총상회와 영종도 차이나타운 관련 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 (2조 4천억원 규모)
- 2004년 4월 26일
영국AMEC사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 120만평 개발 양해각서 체결 (2조 4천억원 규모)
- 2004년 4월 27일
미국 파인사와 독일 힌네베르그사의 합작법인(P.H)과 송도신항 건설 양해각서 체결 (1조 8천억원 규모)
- 2004년 5월 12일~20일
미국, 네덜란드, 독일 순회방문, 투자상담회 개최
- 2004년 8월 6일
노드 앵글리아 교육 그룹과 외국인 학교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230억원 규모)
- 2004년 9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사 이전 (송도테크노파크 본부동)

굿인cheon 굿뉴스

제5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인류 전쟁사에 길이 빛날 인천상륙작전 제5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지난달 15일 열렸다. 식전행사로 월미도 앞 해상에서 안상수 시장, 박승숙 시의회의장, 굿맨(Goodman) 주한미군 해병대 사령관, 바이어스(Byus) 주한미군 해군사령관 등의 해상헌화가 있었다. 이어 일행은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서 헌화를 했다.

기념식은 오전 11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초청인사, 참전용사, 현역군인, 시민 등 8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시 미육군 7사단 소속이었던 존 코백 소위(70·대령 예편)와 카투사 하사관으로 코백 소위를 보좌했던 애수근 씨는 49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다가 지난 99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국서부지회 초청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회, 끈끈한 전우애를 확인했으며 이번에 인천시 초청으로 두 부부가 인천을 방문했다.

문의 _ 시 총무과 (440-2412)

이양대상 사무 발굴

우리시는 시와 군·구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기능의 재배분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와 군·구간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여 이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정한 자

치법규 사무 중 자치단체 간에 정비가 요구되는 사무와 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 또는 불필요한 사무는 과감히 폐지를 추진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는 재배분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시에서 제정한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해 시행되는 시장의 사무 중 현지성, 편의성 등으로 보아 군·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나 사무의 성격상 추진 자치단체장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사무 등 조정이 요구되는 것 등이다.

이렇게 조사된 사무는 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이양, 폐지, 개정 여부 및 내용에 대한 타당성, 시와 군·구의 기능 중 복성과 향후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해 2004년 11월중에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한 후 내년 초에 사무를 해당 단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혁신분권담당관실 (440-3603)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우리시는 각종 주차시책 추진 상황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을 포상 및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군·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 주·정차의 만연 및 부족한 주차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 자체의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9개 자치군·구로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주차시책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평가하게 되며 부문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와관련해 시에서는 금년도에 시달한 각종 시책추진 지침과 주요 사업 추진사항등을 파악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 불법 주·정차단속, 군·구 특수시책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4개항목 19개 분야의 평가표를 작성해 시달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주차관리과 (440-3722)

자체혁신으로 행정시스템 대전환

우리시는 행정내부의 변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정제도 변화 욕구 충족을 위한 제도개선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 조직, 사무관리, 행태, 제도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및 조직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성찰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시는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 실·국의 주무과장 등이 위원이 되는 '변화와 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함과 아울러 실·국별 사무관 이하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실·국별 변화와 혁신추진협의회'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행정 전체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혁신사례의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혁신관련 추진사항 및 추진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이 시정혁신을 요구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혁신분권담당관실 (440-3603)

장애인 교통안전 캠페인 열려



장애인 교통안전 전국순례 캠페인이 지난달 14일 인천시청 현관 앞 광장에서 열렸다.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전국 순회하며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임동일)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섭 정무부시장의 치사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 낭독, 행사차량 30대의 카퍼레이드, 홍보 캠페인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카퍼레이드는 인천시청을 출발해 현대해상화재보험 → 동양장 4거리 → 연수구청 → 송도유원지를 경유해 진행됐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58)

건설사업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우리시는 지역 건설산업의 고품격 품질 관리 및 부실시공방지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산하 설계 및 계약담당 공무원, 건설관련 협회 임직원 및 건설기업인, 기타 건설사업관리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CM)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선진관리기법으로, 민간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도 CM적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인천대 이찬식 교수의 CM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건원엔지니어링 유병기 상무의 CM적용 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시는 지역 건설산업의 사업관리강화 및 고품질 확보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고 선진 건설관리기법인 CM발주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_ 시 건설방재과 (440-3742)

(주)효명건설 여자핸드볼팀 창단



인천을 연고로 하는 (주)효명건설 여자실업핸드볼팀(구단주·서택동)이 지난달 4일 로얄호텔에서 선수를 비롯, 인천시핸드볼협회 관계자, 초·중·고 핸드볼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가졌다.

효명건설 여자핸드볼팀은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주역 임영철 국가대표 여자핸드볼 감독을 비롯, 오영란, 이상은, 명복희 등 9명의 선수로 출범했다. 팀은 8월 27



10월 15일은 제40회 인천시민의 날입니다

10월 15일(금)은 마흔 번째 맞는 인천시민의 날입니다. 우리시는 조선 태종 13년(1413) 10월 15일 비로소 인천(仁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나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의 날 행사를 2년에 한 번씩만 축제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간소한 기념식만으로 시민의 날 공식 행사를 치룹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위한 지방의회 인턴사업



우리시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미래의 여성정치인을 길러내는 ‘지방의회 인턴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 열린 ‘지방의회 인턴사업’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들이 시·군·구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다.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졸업생 등 여성 14명과 남성 2명이 참가한 이번 사업에서 참가자들은 시의회 10명, 부평·남동·연수구 의회에 각 2명씩 배치돼 상임위원, 의회별, 과제별로조를 편성해 정치학습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참가자들은 지난 8월 25일까지 인천시민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지방정치와 여성의 정치 참여, 인천시의회 의 구조 기능 및 발전방향, 지방의원이 되는 길, 지방의회와 국회의 차이점, 조례·규칙 제정 절차 등 정치 기초학습을 받았다. 사전교육 후에는 지방의회 인턴 실무수습을 통해 성공적인 여성 지도자의 모델, 지방의회 입법 과정 등을 연구했다. 지난 9월 8일에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열어 의장과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의원들의 역할을 맡아 ‘시립 인천대학교 국립화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며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인천시 여성의원의 의정 경험담, 인천시 여성의원과의 간담회와 멘터링 구축, 인천지역 현안과제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724)

일 창단을 선언한 뒤 감독과 일부 선수의 아테네 올림픽 대회 참가로 창단식을 미뤘다. 아테네 여자핸드볼 결승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입증한 사령탑 임영철 감독과 골키퍼 오영란과 이상은,

명복희 선수들로 주축이 된 이팀의 활약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팀은 지난달 9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코리아리그 여자핸드볼대회’에서 첫 선을 보였다.

공직사회 부패추방 결의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의 강력한 실천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반부패대책추진결의대회’를 지난달 8일 시청 본관 현관 앞광장에서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시 산하 직원 및 공사·공단 직원 등 1천2백여 명이 참여했다. 시 1만2천여 공직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대시민 신뢰도 회복 및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문의 _ 시 감사관실 (440-3130)

캐나다 마그너사 인천 투자의향 밝히

세계 최고의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캐나다의 마그너사(Magna)는 인천을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그너사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본사를 방문한 안상수 시장에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인천이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천에 투자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아울러 마그너사는 자체 기술 및 경영교육 프로그램에 인천 자동차부품 업체 기술자들의 참여를 적극 검토함으로써 인천기업들과의 기술 및 경영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인터내셔널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인천지역 자동차부품 업체 수출상담회에는 캐나다 현지 바이어 130여명이 참가하는 등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주)대화연료펌프는 쿠바의 구매에 이전트인 타그마지안(Takmajian)사로부터 850만달러 규모의 부품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등 이날의 상담회에서 총 173

건에 9천470만5000달러의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캐나다 현지 한인 자동차부품 업체와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한인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현지 물류창고 등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여부가 인천 자동차부품 업체 수출 활성화의 관건으로 인천시와 KOTRA, 부품업체 공동 물류창고(Ware House) 건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의 _ 시 국제통상과 (440-2862)

미 앵커리지에 인천 조형물 제막



안상수 시장은 북미자동차부품산업 시장 개척단 참가에 앞서 지난달 7일(현지시간) 9월 6일 14:00)에 자매도시 앵커리지에 둘러 작년 8월 마크 베기취(Mark Begich) 시장과 합의했던 인천의 조형물 제막식을 앵커리지 테드 스티븐스국제공항 터미널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앵커리지시장, 조지 월치전 앵커리지시장, 윌리엄 비트너 앵커리지 명예총영사, 모튼 플럼 앵커리지공항 대표 그리고 정원팔 자문관, 최화섭 앵커리지한인회장 등 100여 명의 시관계자 및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인천의 조형물 ‘소망의 주(Statue of Hope)’는 한국 전통의 탑신을 기초로 앵커리지시의 눈과 얼음을 형상화하여 두 도시가 융합해 커다란 빛기둥을 이루는 형상으로 양 도시 발전과 교류확대를 염원하는 인천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한편 앵커리지 조형물은 오는 10월에 인천에 설치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국제통상과 (440-2843)

지자체 첫 경관전문가팀 가동

우리시는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경관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팀을 도시계획과 소속으로 신설했다. 현재 구성된 팀은 경관을 전공한 박사급 전임팀장 1명과 박사급 전임자 1명, 석사급 전임자 1명, 일반 공무원 1명 등 4명으로 전문성을 확보했다. 도시디자인팀의 주요업무는 인천다운 경관형성과 지역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관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전체 모습이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품격을 가꾸는 경관정책의 선진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도시경관팀은 도시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가지경관계획을 수립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변경관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야간경관조성계획을 세우고 구도심살리기 시범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도시계획과(440-3801)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우리시는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하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시는 올해 5회 기념식을 9월 7일 개최하고 포럼, 시민걷기대회 등 행사를 가졌다. 먼저 제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지난달 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서 열렸다. 13일 오후 2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포럼’에서는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도시의 건설’을 주제로 권정호 교수(인천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18일 오후 2시부터 문학경기장 캠핑장 및 주변도로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 시민걷기대회’가 열린다. 코스는 문학경기장 캠핑장→문학경기장 사거리→송학사거리→남인천여중→순복음교회→풍림아파트→인명여고→문학경기장 사거리→문학경기장 캠핑장의 총 4.5Km 구간이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54)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 대책 추진

우리시는 인천시 행정부시장,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차장, 경인지방노동청장, 인천시 부교육감,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매월 둘째주 행정부시장 주재로 운영하기로 하고 첫 번째 협의회를 지난달 7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시도별 중점단속 방향 설정, 합동단속 및 특별단속반 적극 지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간사인 시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 개최한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793)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디자인 시민 선정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대회 홍보와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전문

가가 개발한 엠블렘, 마스코트, 메달 등 기본디자인과 마스코트의 이름을 인천시민이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미 개발된 기본디자인 여러 종을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올려놓고 시민의 최다 득표 디자인을 각각 엠블렘, 마스코트, 메달로 결정하기로 했다. 최다 득표 마스코트 중 응모된 이름을 심사하여 대회 마스코트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문의 _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440-8111~7)

직원 출장용 차량 경승용차 구입



우리시는 최근 유가 급상승에 따라 직원 출장용 차량의 유지비 및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경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행 중이다.

우리시는 직원의 출장과 업무용으로 그동안 소형차 6대를 운영해 왔으나 추가로 경차를 5대 구입하여 총 11대를 운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회계과에서 실·국을 제2 관리부서로 선정하여 분산관리하기로 했다.

우리시는 직원들의 업무 출장시 호응도를 보아 추가로 경차를 구입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회계과 (440-2455)

자활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우리시는 지난달 1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복지관련단체 및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래 그동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토대로 현 자활사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자활정책방향에 대해 의논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복지의 실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시범운영중인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기조강연은 보건복지부 고형우 자활사업 담당사무관, 주제발표는 한신대 이인재 교수가 각각 ‘자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 실장이 ‘인천의 집수리 공동사업’을 내용으로 사례발표를 했다. 이어 이문국 자활정보센터 소장,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경복 계양자활후견기관 대표, 안재환 광역자활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925)

갯벌 장어 먹고 힘내세요



우리시가 특화사업으로 지원한 ‘강화 갯벌 민물장어’ 양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강화갯벌장어생산자협회 후원으로 지난달 14일 점심시간에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시식회에는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직원과

일반 직원 등 500여명이 1인당 4~5토막씩 총 150kg의 ‘갯벌장어 소금구이’를 시식했다.

강화 ‘갯벌민물장어’ 양식사업은 사업비 4억원을 들여 강화군 관내 해수 축제식 양식장 7개소에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민물 뱀장어(성어)를 무사료 상태로 순치시켜 육질을 개선해 맛이 자연산 뱀장어와 같도록 했다.

이날 우리시는 구내식당 입구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갯벌장어를 홍보했다.

문의 _ 시 수산과 (440-3232)

수도 검침·고지 문자서비스 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 검침·고지제도에 모바일 서비스를 접목해 2004년 8월부터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검침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계량기를 직접 검침하여 인터넷으로 지침을 전송하고 메일로 고지서를 받으면 월 800원의 요금을 감면받는 방식으로 자동납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수도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급수장치를 관리함으로써 가정의 수도관 부식 및 사용자 부주의로 낭비되는 연간 1,072,679㎥의 수도물을 절약하려는 취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8월부터 제공중인 문자서비스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매월 검침일과 인터넷 주소를 전송해 검침일을 기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행 첫 달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납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인터넷 검침·고지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870-9225)

의 정 소 식

제12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승숙)는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질문 및 각 실·국 업무보고, 조례 등 기안건 등 10건을 처리하고 9월 9일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가 있었으며, 실·국별 업무보고 시에는 업무추진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따끔한 질책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책 강구가 있었다.

한편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명에 시민중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등 3건은 보류하였으며, 가천길대학교로부지 환원을위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기간에는 정치에 꿈을 가진 여성대학생들이 지난 8월 23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참관, 모의의회 개최,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며 현실정치를 배웠다. 이들은 9월 9일 ‘지방의회 인턴사업’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학업에 복귀했다.

지방의회 인턴사업 참여자와 의원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는 미래의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인턴사업’에 참가한 학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8일 인턴실무 수습기간 동안 느낀점과 평소 지방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의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의원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엔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김성숙 의원과 추연어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이 평소 의원과 의회에 대해 궁금한 사항, 의회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은경 씨(23, 인천대 정외과4)가 “의원이 된 걸 후회해 본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추연어 의원은 “의원이 된 뒤에 집에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어 집사람이 의원직을 그만두라고 한 적도 있지만, 돈벌려고 시의원된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평가 받는 것을 명예로 여기자며 설득했다”고 말했다.

김성숙 의원은 “시의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줄 알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막상 되고 보니 여건이 너무 부족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범희 씨(23, 인천대 정외과4)는 “김성숙 의원과 추연어 의원이 의정활동에 열심이었고, 특히 김성숙 의원의 경우 여성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말문을 연 뒤 “시의회가 고쳐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추연어 의원은 “사실 의원들이 회기준비에 철저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보좌관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하다보니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성숙 의원은 “인천시만해도 규모는 방대한데 29명의 의원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내·외부적으로 제약도 많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독립이 시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씨(23, 인천대 정외과4)는 “의회가 시를 견제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견제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의원유급제가 빨리 실현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숙 의원은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시정질문 등은 공개된 행위이기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모면한다 하더라도 그 근거는 남게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연어 의원은 “사안에 따라 행정적 잘못은 행정적으로 법률에 근거해 조목조목 지적하면 공무원들도 수긍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의원유급화가 되면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받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지방의회 의원발의가 적은 이유”,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질의·답변이 끝난 후 김성숙 의원은 “여성에게 정치는 미개척 분야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하기에 따라 가능성이 무한하기에 꼭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고, 추연어 의원은 “여성들의 깨끗하고 세심한 긍정적인 측면이 정치를 하는데 좋은 작용을 하므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천과 텐진 ‘영원한 우정’ 약속

텐진시가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2004 텐진 한국주간' 행사를 마련한 것은 텐진과 인천이 자매결연한 지 11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텐진은 '정도' 600년을 맞았으며, '한국-중국 수교'는 12년 째이기도 하다.

'2004 텐진 한국주간'은 사실 '인천과 텐진'의 자매결연을 돈독히 한 행사라고 보면 맞다. 광역지자체 단체장으론 안상수 인천시장이 유일하게 텐진을 방문했으며, 인천시립무용단·노종선 풍물단 등 인천지역 예술인들은 한국의 전통 예술을 선사했다.

텐진은 행사 기간, 자신과 비슷한 도시 인천을 통해 한국을 보았다. 항구·임해공업도시, 경제특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텐진은 정말, 인천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 대표단이 텐진에 도착한 것은 지난 8월 27일 오후. 안 시장과 파이 상 룡 텐진시장은 이날 저녁 '인천-텐진 3개년 교류계획서'를 체결했다. 교류계획서는 두 도시간 경제, 무역에서부터 과학기술, 문화, 도시건설, 위생, 체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시장은 "EU나 나프타처럼 한국, 중국, 일본도 경제연합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파이 상 룡 시장과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국가간 협력은 워낙 방대한 사업이어서 우선 세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먼저 경제블록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협력도시 구축'은 파이 상 룡 시장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사항이다.

안 시장과 파이 시장은 한 마디로 '코드'가 맞아 보였다. 아마 둘 다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이리라. 안 시장은 이에 대해 "파이 상 룡 시장은 한국 은행 격인 중국인민은행의 총재를 역임했고 나는 기업인 출신"이라며 "형제처럼 느껴졌고 앞으로 그렇게 지내기로 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2시35분쯤 드디어 '2004 텐진 한국 주간행사'의 개막식이 시작됐다. 먼저 인사에 나선 안 시장은 3만여 텐진 교민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인천과 텐진의 탄탄한 관계 위에서 한국과 중국이 더 잘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텐진과 인천이 동북아 공동번영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파이 시장은 답사를 통해 "지난해 안 시장을 만났는데 다시 보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문을 연 뒤 "안 시장과 3년간 교류협정서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텐진과 인천이 서로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파이 시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축포가 터지면서 인천과 텐진의 꿈을 담은 수백 개의 풍선들이 푸른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개막식 공연은 노종선 풍물단의 풍물놀이, 중국 예술단의 용춤·사자춤 등 서로의 전통 예술을 주고 받았다.

29일 오전 인천시 대표단은 텐진경제기술개발구(TDA)를 방문했다. 바다를 매립해 만들었다는 TDA는 송도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인천이 본받을만한 곳이었다. 1984년 중국이 최초로 설립한 국가급 개발구인 TDA는 3조7천억원의 돈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했고 외자 유치만도 1천45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안 시장과 인천시 대표단은 장 쥘 텐진경제기술개발구 부주임을 만난 자리에서 투자여건, 개발속도, 전략 등과 관련한 꼼꼼한 질문을 던졌다. 이어 대표단도 인천시의 투자여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인천과 텐진, 텐진과 인천은 그렇듯 마주보며 한 단계 높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글·사진_김진국(인천일보 기자)

국가간 협력 물꼬트기, 인천-텐진이 주역

안상수 인천시장과 파이 상 룡 텐진시장 사이에 맺어진 '인천 텐진 3개년 교류계획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두 도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주 내용이다.

교류계획서 9개 항목의 주요 내용은 격년제 실무회의 개최, 투자유치 정보통보제 실시, 인천시 의회와 텐진시 인민대표회의 간 교류협력, 인천시 상공회의소와 텐진시 공상연간 교류협력 등이다. 청소년우호교류와 공무원 교환, 각 분야 인사들의 방문 사찰,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한 팸투어 추진 등의 내용도 엿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인 '3년 안에 인천에 천진대표처를 설립한다'는 내용은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파이 상 룡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설립한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북아 협력도시 구축'에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열려라 중국, 펼쳐져라 실크로드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차이나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중구 북성동. 두 개의 패루가 차이나타운의 시작을 알려주지만 정작 차이나타운에 들어서면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런 차이나타운의 초입에서 녹색바탕에 멋스러운 흰 글씨의 ‘한국산동예술문화원’ 문패를 만나게 된다면 쉽게 중국풍을 감지할 수 있다.

인천과 중국 산둥성간의 문화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문을 연 한국산동예술문화원(이사장 최근식)은 20여평 규모의 공간에서 한·중 예술인들의 작품 상설전시와 함께 인천향토사와 인천·산둥성 간의 다양한 문화예술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여러 도시들, 특히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도 여럿인데 왜 하필이면 산둥일까? 이런 물음에 최근식 이사장은 예술원의 캐릭터를 내 보이며 설명을 이어간다. 초록지구를 배경으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산둥에 닿아 말을 탄 후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낙타를 타고 실크로드를 횡단하는 것을 형상화한 캐릭터이다. 분단과 공산정권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중국과의 문화적 통로를 뚫어가는 전초기지가 바로 인천이고, 인천에서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는 곳, 백제시대 능허대에서 배를 타고 사신들이 중국에 갈 때 닿았던 곳이 산둥이기에 두 문화가 만나서 교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출발한 것이 바로 산동예술문화원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깔고 지난 4월의 개관기념 초대전은 중국작가 초대전을 겸한 중국 공예품 특별전으로 열었다. 화조화와 모란화를 주로 그려 산둥에서 주목받는 젊은 화가인 주룽화(朱榮華), 왕희지의 후손으로



1 중앙아시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예술원의 내부 2 문화사업을 실크로드까지 확대하겠다는 최근식 이사장 3 현재도 중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개성있는 필체가 돋보이는 서예가 왕웨이텐(王渭田), 유네스코지정 민속예술가 왕옌창(王言昌), 회화와 고양이를 소재로 한 전지(剪紙)작품으로 알려진 텐커화(田克華) 등 중국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 전시했다. 이와 함께 도자기, 자수, 연, 납염, 경태랍 등의 중국 공예품 특별전도 함께 열었다. 지금도 산동예술문화원을 찾으면 누구나 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세 번째 실크로드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중국, 한국 등 네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였다. 여름방학기간에는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인천의 바다와 땅, 하늘을 만나는 종주대회를 갖기도 했다. 인천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고인돌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이 인천의 문화를 바로 알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였다. 내년에는 고인돌 답사를 산둥지역까지 확대해 공동의 문화유산을 매개로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이 만나는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중국의 날 축제 기간에는 산둥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듭, 인형, 도자기, 청동제품 등의 기획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최근식 이사장은 “그동안의 경직되고 패권 중심, 국가 중심 문화에서 탈피해 이제는 지역과 지역이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실크로드 음악회 등을 통해 막혀있는 아시아 문화를 뚫어내고 선도하는 인천의 역할을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라는 포부를 밝힌다.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을 알고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일이 한국산동예술문화원에서부터 불씨를 피워가고 있다.

※ 한국산동예술문화원은 실크로드 문화기행과 각종 중국관련 공연, 전시행사의 주인이 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762-3191)

글_ 정정애 · 사진_ 김정식

중국을 알려면 이곳에 오세요

한중교류센터 (www.kcec.org)

우리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에 있는 한중교류센터는 중국에 대한 현안문제를 연구하고 기업들의 중국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2월 설립됐다. 한중교류센터는 중국정보종합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중국시장동향, 우리시의 대 중국 교류백서 등의 간행물을 내고 한국에 있는 중국연구기관, 중국에 있는 한국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중국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센터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우리시의 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중국과 교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지역 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기업이 중국 비즈니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내 제일의 중국 실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센터의 또 다른 자랑거리. 앞으로 한중교류센터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개발과 차이나타운 건설, 외자유치 전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힘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중국 정보 종합센터로 발전할 계획이다.

인천차이나클럽 (http://icc.kcec.org)

정부가 동북아 중심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각 기관, 업계, 학계에는 대중국 교역 관련부서가 붓물터지듯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취합해 실무에 활용하는 데는 아직 미숙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우리시는 중국경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서로 교환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각 회원간의 교류 등을 통해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인천차이나클럽을 발족했다.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하는 인천차이나클럽은 중국의 리빈 대사 등 고문단과 산·학·관·연 의장단, 운영위원, 일반회원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조업, 물류유통, 금융부동산, 첨단기술, 사회,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과 등 총 8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하는 인천차이나클럽은 중국 연구기관끼리, 각 단체끼리 유기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해 경제분야를 위주로 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 제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 또한 중국 관련 지역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중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중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 2

별을 조명 삼아 풀벌레 소리 음향 삼아

공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엄숙한 분위기에서 관람할 필요는 없다. 우리시 곳곳에는 시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 행사를 즐기고, 공연단체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야외무대가 마련돼 있다.

야외무대라고 해서 동네잔치쯤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시 시립예술단의 수준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다. 무대의 특성상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상설 공연되는 야외무대는 시민들에게 밀착된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인천의 문화 메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통해 새롭고 신선한 공연을 자주 만날 수 있다. 특별히 야외무대는 시민들이 부담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열린공간이다.

274평의 공간에 객석 440석, 68평의 무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야외무대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시립무용단의 '홍마당 춤마당'이 차지한다.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시립예술단이 마련하는 무대라 어느 공연보다 수준이 높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에는 '금요예술무대'를 만날 수 있다. 어린이 날을 즈음해서는 어린이뮤지컬이 열리는가 하면 풍물패의 공연, 현대무용, 팝스기타, 그룹사운드, 공중 줄타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시기에 맞게 그리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특히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의 야외공간 및 부대공간은 인접공간과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공간을 연출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봄이면 장미정원의 향기가 객석을 가득 메우고 벽천호수의 물보라는 청량감과 시원함을 더해준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공연은 모두 무료다. 금요일에는 가족들끼리 부담없이 예술작품에 흠뻑 취해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_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과 (437-8411)



수봉민속놀이마당

인천시민들의 오랜 휴식터 수봉공원 앞마당에 수봉민속놀이마당이 있다. 수봉민속놀이마당은 이름에 걸맞게 일요일이면 우리 옛 전통의 공연들이 상설 공연된다. 4월부터 10월까지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이 그것이다. 인천의 무형문화재와 타 시도의 중요 무형문화재를 감상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공연이다.

800명에서 많게는 1천 명가량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수봉민속놀이마당은 집 앞마당처럼 편안한 분위기다. 계단식 좌석은 공연장을 내려다보며 감상할 수 있어 편안함을 더해 준다.

10월에는 전북 중요무형문화재인 임실필봉농악,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인 북청사자놀음, 부산 중요무형문화재 수영야류가 초청돼 공연되고 우리시의 무형문화재로는 범패와 작법무, 강화용두레질노래가 준비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3252)



연수구 문화공원

연수구의 여러 썸지 공원 중에서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 중의 하나는 연수3동 영남스포렉스 앞에 자리잡은 문화공원이다. 시민들이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 한 달에 한 차례씩 야외무대가 펼쳐지는 때문이다.

연수구 연극인협의회에서 연수구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토요일마당은 '문화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수와 욕구를 충족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올 4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다. 첫 번째 공연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팬플룻 공연을 마련했다. 그 이후에도 음악, 뮤지컬, 아동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문화마당의 야외무대는 좌석이 따로 없이 공원 자체를 객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끼리 자리를 펴고 원하는 곳에 둘러 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통 7시부터 시작되는 공연은 열린 무대라는 특성처럼 끝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객의 반응이 좋으면 공연이 계속 연장되고, 좀 쉴렁하다 싶으면 준비된 공연만 마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10월에는 각 지역의 언더밴드 10여 팀이 참가하는 락페스티벌 공연의 신나는 비트와 우렁찬 소리가 연수구의 가을 하늘을 수놓는다.

문의 _ 연수구 연극인협의회 (821-2235)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외무대



조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84년 개관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은 전쟁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훌륭한 교육 현장이다. 주말이면 이곳의 야외공연장에서 상설무대가 열린다. 서양 실내악, 실버악단 공연, 마임 공연 등을 인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아이들과 전쟁의 유물들을 둘러보다 야외무대 공연도 즐길 수 있어 1석 2조다.

올해는 5월 22일 시작된 토요상설무대가 7월 10일로 다소 일찍 막을 내려 아쉬움을 준다.

문의 _ 인천상륙작전기념관 (832-0915)

서구문화회관 금요일예술무대

서구민들의 문화휴식처 서구문화회관은 금요일예술무대를 야외에서 마련한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모토로 9월 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분수대광장 특설무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올해는 가족뮤지컬, 마당극-우리소리를 찾아서, 구민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 등 가족들끼리 편하게 찾아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주로 무대에 올랐다.

특설무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공연장으로 마련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야외무대 보다 일정이 다소 빨리 끝나는 것이 아쉽다.

문의 _ 서구문화회관 (583-2361~2)



옛 시민회관 쉼터

인천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각종 공연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옛 시민회관. 이제는 노후된 건물이 철거된 자리가 오가는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이 쉼터가 옛 영화를 재현이라도 하려는 듯 작은 음악회와 공연이 열리는 문화마당으로 변신하고 있다.

시민회관 쉼터에서 매주 공연을 올리는 곳은 남구 학산문화원. 지난 5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흥겨운 문화 잔치를 벌였다. 오가는 이들이 편하게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토요문화마당'이다.

가을을 맞아 토요문화마당이 '금요문화마당'으로 작은 변화를 주었다.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시민들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 유종호의 색소폰 연주, 포크송연주, 최규호의 마임, 인천그린실버악단의 연주 등 은은하면서도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문의 _ 남구 학산문화원 (881-3993)



문학경기장 야외무대 · 자유공원 청소년 쉼터

월드컵 4강 신화의 문이 열렸던 문학경기장은 야구와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장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 변신에 가장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은 문학경기장 북문의 분수대 좌측에 있는 야외상설무대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이면 30평 규모의 야외무대는 청소년들의 공연장이 된다. 공연의 주인공은 청소년 동아리팀. 댄스동아리, 치어, 힙합, 응원단, 가요, 사물놀이, 풍물 등을 공연한다.

인천시청소년문화사업단이 주관하는 청소년 야외상설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다. 지난해에는 매주 문학경기장 야외무대에서 하던 공연을 올해는 자유공원 청소년 쉼터에서 첫째 · 셋째주, 그리고 문학경기장 야외무대에서는 마지막 토요일로 나누어 공연하고 있다. 4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공연은 인천에 있는 청소년동아리라면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문의 _ 인천청소년문화사업단 (434-5711)



도호부청사 앞마당

도호부청사에서는 민속놀이 체험마당, 전통혼례, 무형문화재 · 어린이극 공연 등 3개 과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교 등에서 단체로 도호부청사에 견학을 왔다면 도호부청사의 '맞춤공연'의 혜택도 누려볼 수 있다. 단체관람객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인원 이상이 되면 공연을 하는 것이다. 견학을 온 어린이들은 10시 경부터 도호부청사를 둘러보고, 전통체험 놀이를 한 후 11시쯤 공연을 보게 된다. 어린이극, 마임, 전통악기 시연 연주, 어린이 은율탈춤 등 어린이들 수준에 맞는 레퍼토리가 무대에 오른다.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과 일반단체는 언제든지 도호부청사에 신청을 하면 일정을 조정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_ 도호부청사 (425-2692)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성환

우리 동네 쌀...밥맛 좋네

유엔은 올해를 '세계 쌀의 해'로 정하고 '쌀은 삶이다'라고 선언했다.
농촌 벌판에서 황금물결의 풍요와 평화를 자아내는 벼,
쌀은 우리의 문화이며 경제이자 미래이다.
우리시의 강화군과 옹진군 그리고 인천 곳곳에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해 내고 있다.
우리 지역의 브랜드 쌀과 구입방법 등을 알아본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강화섬쌀

강화는 청정 섬이다. 북한이 바로 코앞이고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지역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공장 같은 공해유발 업소가 거의 없어 물과 공기가 깨끗하다.

깨끗한 물, 넉넉한 햇살, 시원한 바닷바람, 건강한 땅이 만드는 강화섬쌀은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쌀이다. 재배기술도 뛰어나지만 생육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토양에 곡식이 머물고 맛을 내는데 크게 기여하는 마그네슘 함량이 많은 대신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아 안전한 곡식을 생산하는데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밤낮의 기온차(10.2℃) 또한 전국 어느 곳보다 뚜렷해 쌀의 상품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강화는 논 면적이 전국의 1% (13,000ha)를 차지하는 곡창지대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9,436호 농가에 27,633명이다. 그들이 만드는 대표 쌀은 '강화섬쌀'이다. 지난 2002년에 상표 등록을 한 '강화섬쌀'은 이천의 임금님표, 철원의 오대미와 함께 우리나라 쌀 브랜드 파워 3강에 드는 유명한 쌀이다. 손을 대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손을 적실 것 같이 기름기가 자르르 흐른다.

강화섬쌀 외에도 강화도에는 정미소별, 작목반별 그리고 개인이 상표등록 한 브랜드 쌀이 40여개에 이른다. 쌀 이름을 시조에서 따온 '이화에 월백하고'는 강화 최대 경작지인 망월평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 속에서 자란 추청벼와 일품벼를 수매하여 도정한 쌀이다. 우리나라 쌀로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 FDA인증을 획득한 건강미이다.

'청정누리 교동섬쌀'은 섬 속의 섬 교동도 비무장지대(DMZ)에 생산된 쌀이다. 교동도를 끌어안은 신선한 바다의 기운과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기가 충만한 옥토가 더해져 맛있는 쌀을 만들어낸다. 송해면에서 생산되는 쌀 '향기농 골드미'는 최고 품질의 밥맛을 자랑하는 추청쌀에 아랑향 찹쌀의 구수한 향기를 유지시키며 도정 직후 페트병에 쌀을 넣은 후 질소(Na)를 충전하여 포장한 쌀이다. 산화와 벌레 등의 침투를 막고 습기를 차단하여 최고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다.

'기능성 순무쌀'은 순무의 고장답게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강화섬쌀에 순무엑기스를 가공해서 첨가한 기능성 쌀이다. 이밖에 눈에 오리를 풀어 넣어 해충을 잡아먹게 하고 농약은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은 청정미 '교동도 청둥오리 강화쌀',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이 마주 보이는 청정지역 당산평에서 추청벼만을 생산한 '송해 믿음맛쌀', 석모도의 상·하리에 있는 송가평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된 '해풍쌀' 그리고 '강화도령쌀' '건강한 숯쌀' '강화도 태양미' 등이 있다.

구입처 및 문의 _ 강화농산물직판장(934-0901~4) / 강화군농업경영인협회(933-5283) / 강화마트(www.ghmart.com) / 강화쌀(<http://www.ganghwassal.com>) / 강화로닷컴 (www.ganghwaro.com)



바닷바람에 잘 여문 **웅진군 쌀**

1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웅진군에서는 많은 양의 쌀은 아니지만 섬마다 해풍에 잘 익은 양질의 쌀이 생산된다. 웅진 바다는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바다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웅진 섬은 사시사철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기후 덕분에 알곡이 잘 여문다. 또한 한반도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분명하고 모든 농업용수를 오염이 되지 않은 청정수인 빗물이나 지하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깨끗한 쌀이 만들어진다.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임 만나 보겠네...’ 북녘땅 장산곶이 먼발치에 보이는 서해 바다의 종착역, 백령도. 섬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농사짓는 사람이 더 많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는 ‘공양미 삼백석’ ‘암반수 쌀’ ‘가을미’ 등이다. 심청이 몸을 던진 인당수가 백령도 앞바다라는 설에서 착안해 이름 붙여진 ‘공양미 삼백석’은 지난 1998년부터 백령도의 대표 쌀 역할을 했다. 얼마 전부터는 ‘암반수 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저수지가 없는 백령도는 지하수를 퍼 올리거나 빗물로 농사를 짓는데 ‘암반수 쌀’은 땅에서 솟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무공해 물을 먹고 자란 건강미다. 이밖에 간척지에서 키운 ‘가을미’도 생산되고 있다.

장봉도 ‘오리쌀’은 500ha 논에서만 생산될 만큼 적은 양이지만 농약 대신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귀한 쌀이다. 고엽제 같은 제초제를 전혀 살포하지 않고 ‘피사리’라고 불리는 잡초를 일일이 손으로 제거한 무공해 유기질 농법으로 재배한 쌀이다.

구입문의 _ 백령농협(836-0880)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인천쌀**

비록 너른 들판에 펼쳐진 황금빛 논이 풍광은 아닐지라도 도심 속의 논은 잠시나마 도시인에게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떠오르게 하며 평안을 준다. 도시계획으로 인해 인천 도심에는 논이 거의 사라졌지만 잠시 외곽으로 벗어나면 아직도 벼농사를 짓는 곳을 더러 볼 수 있다.

계양구는 영농조합이 있을 정도로 농사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도농 지역으로, 쌀 맛 좋기로 소문난 김포평야와 이웃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는 ‘계양특미’ ‘황어쌀’ 그리고 ‘엄마가 고른 쌀’이다. ‘계양특미’는 15년 전부터 사용해 온 대표브랜드로 김포평야에서 생산되는 일반미와 같은 1등급 벼로서 한강 상류의 청정수를 사용해 미질과 밥맛이 좋은 쌀이다.

계양친환경쌀작목반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야심작 ‘엄마가 고른 쌀’은 우렁이농법과 당밀농법으로 생산한 친환경쌀이다. 농약 대신 잡식성 왕우렁이의 특성을 이용해 제초하고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잔여물인 당밀을 논바닥에 분해시켜 잡초발생을 억제시키는 등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쌀이다. ‘황어쌀’은 3년 전부터 계양 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쌀이다.

이밖에 남동구는 지난 2002년부터 ‘남동미’를 브랜드로 내놓고 있다. 구입문의 _ 계양농협 (515-1611 / www.gyeyangnh.com) 남동농협(460-6641)

글 _ 유동현 · 사진 _ 김정식

쌀은 영양소의 보고(寶庫)

쌀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한편, 당뇨병 및 암 예방에도 우수한 효능이 있다. 서구식 식생활은 식이섬유가 적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설탕의 섭취량이 높아 순환계질환과 암, 당뇨병 등의 성인병 유발률이 높다.

한방에서는 쌀이 위장의 기운을 편하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영양학자들은 쌀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다고 말한다.

쌀은 부드러운 백미(白米)보다 덜 정미한 현미와 배아미(배아부분을 남기고 쌀겨만 제거한 쌀)가 좋다. 이런 쌀에는 백미에 들어있지 않는 식이섬유와 비타민B군, 칼슘, 마그네슘 등 성인병 예방에 필수적인 영양소까지 고루 들어 있다. 백미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밥을 먹을 때 채소, 생선 등 다양한 반찬을 함께 먹기 때문에 빵을 주식으로 한 서양식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최근 쌀밥, 생선, 채소 등으로 이뤄진 쌀밥 중심의 식사가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용두레마을 햅쌀 축제

추수철을 맞아 강화군 내가면 용두레마을에서는 10월 중순경에 햅쌀 축제가 열린다. 농부와 도시민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을 이해하는 만남의 장이다. 손 베베기, 콤바인 체험 등 벼수확 체험, 가족이 함께 허수아비 만들기, 경운기 드라이브, 들밥먹기, 떡메 쳐서 찹쌀떡 만들기 그리고 용두레 햅쌀장터 운영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장 소 _ 강화군 내가면 황청1리 용두레마을
문 의 _ 011-9038-6753 / www.yongdure.com



그 바다... ‘비’ 온 뒤 맑음

비가 떠났다. 비(영재)는 지난 여름동안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섬을 떠났다.

그가 떠난 후 며칠 동안 또 다른 비가 왔다. 태풍 ‘송다’는 섬을 잠시 고립시켰다. 비바람이 불고 난 후 하늘은 해맑은 청년의 얼굴로 다시 돌아왔다.



전망이 확트인 통유리창, 푸른 하늘로 솟은 하얀 망루, 바다로 쭉 뻗은 나무데크. 정원의 장미터널... 말 그대로 만화 주인공들이나 살 것 같은 아름다운 집이다. 이곳에서 영재(비)와 지은(송혜교)은 티격티격하면서 사랑을 싹틔웠다.

그들이 떠나간 후 이제 풀하우스의 주인은 여행객들이다. 드라마는 이미 끝났지만 그 분위기를 되새김질하고픈 사람들로 늘 분주하다. 주말에는 1,000여명의 사람들이 순전히 그 집을 보기 위해 몰려서 건너온다. 평일에도 300여명씩 그곳을 찾는다.

“어머, 저 책상 좀 봐. 저기에 앉아 비가 턱을 괴고 그윽한 눈빛으로 바다를 보며 상념에 젖곤 했는데...” “서로 ‘조류’라고 놀려대면서 이용다용하며 장난치던 소파도 그대로 있네” 그들은 집 주위를 뱅뱅 돌면서 셔터 누르기에 바쁘다. 그곳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으면 누구라도 송혜교와 비가 될 만큼 아름다운 바닷가이다.

풀하우스가 있기 전에도 그 바다는 예뻐다. 끝에서 끝까지 한달음이면 닿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해변은 활처럼 휘어져 마치 호수처럼 아늑하다. 바다 건너 눈앞에는 강화도 남단이 펼쳐진다. 마니산의 자태가 뚜렷하게 보이고 일몰이 아름답기로 소문 난 장화리 해변도 손에 닿을 듯하다. 건너편 바다에서 밀려오는 잔잔한 파도 속에는 비와 송혜교가 외쳐대던 ‘아자, 아자 화이팅!’ 이 실재없이 묻어왔다.

한걸음더

모도와 이일호

시도 노르메기에서 연륙교를 건너 모도 끝에 가면 배미꾸미 해변이 나온다. 좁은 숲길을 통과하면 '모도와 이일호'라는 작은 조각공원이 등지를 들고 있다. 조각가 이일호씨가 바다가 보이는 잔디밭에 자신의 작품 3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에로티시즘 조각'을 추구하는 그의 작품들이 바다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신도 구봉산

구봉산(178m)에 오르는 길은 7,300여 그루의 산벚꽃나무가 뻗뻗하게 우거져 있다. 임도를 따라 4km를 걸어 구봉정에 오르면 인천국제공항이 코앞이고 강화도, 김포반도 등도 한눈에 들어온다. 정상까지 길이 잘 닦인 산악자전거 코스가 있으며 2시간이내 코스의 등산로가 여러 개 있다. 쉼터를 갖춘 구봉산 성지약수터도 유명하다. 밤에 구봉정에 오르면, 공항에서 펼쳐지는 빛의 마술쇼를 감상할 수 있다.

찾아기는 길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영종대교를 건너 심목선착장에 닿는다. 이 선착장에서 신도를 거쳐 장봉도 가는 배를 탄다. 배는 1시간 꼴로 있다.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10,000원(운전자 포함), 승객은 1,500원이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 놓고 그냥 몸만 건너가서 신도 · 시도 · 모도를 운행하는 공용버스를 타고 된다.

배편 문의 _ 세종해운 (884-4156)



글 _ 유동현 · 사진 _ 김성환

일등샤브칼국수의 버섯매운탕칼국수



빛깔부터 매운탕처럼 빨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일등샤브칼국수의 버섯매운탕칼국수는 이 집의 상호처럼 칼국수계의 '일등'이라 할만하다. 그 맛의 비결은 바로 육수와 다대기. 절대 비밀이라는 그 노하우는 주인 구본관씨가 횃집에서 오래 근무하며 터득한 것이다. 칼국수의 빛깔을 빨강게 내주는 양념장에는 고춧가루를 비롯해 스무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다.

칼국수를 시킨 뒤 처음엔 버섯 등 야채와 함께 끓여 먹다가 나중에 꽃등심 샤브샤브와 곁들여 먹으면 더 완벽한 맛을 볼 수 있다. 고기를 넣기 전에는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나다가 고기를 넣을수록 담백하고 진한 맛이 우러나온다. 남으면 '집에 가서 밥을 말아먹겠다'며 싸달라고 할 정도로 진국이다.



일품의 박숙낙지



선재도 일품에서 맛보는 박숙낙지는 바다를 바라 보며 낙지의 구수한 맛과 시원한 박숙의 향기를 함께 즐기는 별미로 음식점 이름 그대로 맛이 '일품'이다. 박숙낙지는 땅과 바다의 합작품이다. 먼저 다시마, 바지락 등 각종 해물로 만든 육수에 식용 박의 속살을 넣고 푹 끓인다. 그 다음 양송이·팽이버섯, 호박, 양파, 파, 청양고추 그리고 조랭이떡볶이를 넣고 끓인다. 여기에 선재도 갯벌에서 잡은 싱싱한 낙지를 넣고 샤브샤브 식으로 살짝 데쳐 양념간장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낙지와 채소를 다 건져 먹은 다음에는 칼국수를 다시 끓여 먹는다. 낙지전골과 쭈구미 볶음 등 낙지 관련 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여보, 나 10원만...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 화폐단위변경)'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3차에 걸쳐 통화조치를 실시하였다.

1차(1950년 8월 28일)는 전쟁 중 불법 납탈된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조선은행권 100원권의 유통을 정지하고 이를 한국은행권과 교환토록 했다.

2차(1953년 2월 15일)는 통화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는 한편 화폐호칭을 '원'에서 '환'으로 변경했다.

3차(1962년 6월 10일)는 통화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했다. 사진은 6월 10일 0시를 기해 단행된 통화개혁에 따라 화폐를 교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통화조치 때 1,000대 1로 바꿀 경우 현재 3,000원 하던 자장면은 3원이 되고, 1,600원 하는 택시 기본요금은 1원 60전이 된다. 순간적으로 물건값이 엄청나게 싸다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엄마, 나 1원만...' 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鉉>



보랏빛 향내와 웃음소리와...

이상희 아나운서

저녁 6시 10분.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여자가 나온다. 여자는 꼭 국화꽃 같다. 잔칫날처럼 소란하고 들떠 있는 방송국 로비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가로질러 오는 여자는 보라색이다. 틀림없이 검은 눈동자, 검은 원피스, 술이 많아 풍성해 보이는 검은 머리칼, 그리고 잔잔히 웃음부터 무는 희고 가지런한 치열(齒列)을 가졌는데, 여자는 그냥 보라색 향기다.

그렇다. 여자의 둘레는 모두 기쁜 보라색이다. 현관 의자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한 다발 국화꽃도, 무슨 보석에서 나는 맑은 향내를 방금 하늘에 끼얹어 물들인 듯한 저녁노을도, 김광균의 '보랏빛 색지'는 이런 저녁 빛깔일까.

무엇을 물어 보아도 여자는 먼저 웃음부터 웃는다. 그리고 뉴스를 할 때보다 훨씬 가볍게 찰랑거리는 목소리로 그 다음에 말을 한다. 여자의 말과 웃음을 듣고 있노라면 비로오드에 감싸인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하다. 웃음과 그런 목소리는 보라색 여자의 무기. 이런 순간은 언뜻 거꾸로, 외로운 나리꽃 같은 느낌도 있다.

여자를 따라 5층으로 올라가면서, 보석에서 정말 향기가 나는지를 여자는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술잔 속에 보석을 집어넣으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도 틀림없이 여자는 알고 있을 것이다. 여자의 걸음이 바쁘다. 5층으로 가는 것은 방금 끝난 프로그램 평가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

멀리서 넘겨다보는 여자의 저녁 보라색이 조금 식어 있다. 새침하게 보이는 것은 긴장 때문일까 진지함 때문일까. 10분. 이제 다시 4층 아나운서실로 가야 한다. 거기로 가야 여자가 편히 말할 수 있는 책상이 있다.





“제 이름은 이상희인데요, 상 자(字)가 좀 특이해요. ‘오히려 상(尙)’ 자거든요. 희 자는 ‘복 희(禧)’ 자구요.”
 “오히려 복이라구요? 재미있어요.”

이상희(李尙禧). 결혼 생활 5년. 아이 없음. 경인방송 아나운서. 아나운서팀장, 회사 노동조합 여성국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 거주. 남편 경인방송 PD. 대부분 서로 엇갈린 시간에 매일 인천으로 달려왔다가 달려가는 생활. 인천에서도 1년여 거주했던 경험. 희망 사항이라면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생활을 누리 보는 것, 남편에게 따뜻한 저녁 식탁을 차려 주는 것, 아기를 갖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유리창 밖에는 어느새 그녀의 원피스 색깔과 똑같은 검은 저녁이 내려와 있다. 여자의 슬리퍼 형 구두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반창고를 두른 것을 보여준다. 무엇을 발가락 위에 떨어뜨렸는지 모른다.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말도 떠올린다. 여자는 웃고, 방 안은 목이 마르다.

“저는 언제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실을 인내하고 슬기롭게 넘기려고 해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지나가고, 그러면 편안한 날이 오고 그 힘들었던 일들은 이 내 추억으로 남게 되니까요.”

상냥하고, 세련되고, 지성적이면서 꽃잎 이파리 위의 반짝이는 물방울 같은 광택과 냉정하지 않은 촉촉한 습기를 여자는 가졌다. 그렇다. 삼십 중반도 채 되지 않은 여자에게 검은색 원피스를 어울리게 하고, 그 웃음 소리를 보라색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이런 삶의 말들이 지닌 그 깊은 의미 때문인지 모른다. 인생은 이렇게 환하고 곱고 명랑한 여자에게 더 많은 일들을 참고 견디게 하는가 보다.

“97년에 입사한 후, 다 합쳐서 뉴스 앵커만 3년 했어요.”

얼마 전까지 밤 10시 메인 뉴스를 하던 앵커였는데 지금은 매일 저녁 5시에서 6시 5분까지 생방송 ‘i for you’라는 프로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것은 한 시간 동안 생활 정보를 전달하고 상담도 하는 브이제이리포트식 프로. 또 주말에는 ‘Touch iTV’라는 옴부즈맨 프로도 맡고 있다. 거기에 매일 새벽 6시부터는 FM 라디오 ‘굿모닝 클래식’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클래식 음악 프로를 진행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아직 어느 한 군데도 성형 수술을 못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서보다 얼굴이 훨씬 작다. 이목구비도 매우 또렷하다. 여자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여자의 그런 자랑이 분장실의 조명등을 모두 올린 것처럼 아주 예쁘고 밝다. 인생을 터득하는 것보다 이런 재미있는 자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슬프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더 보라색답다. 나리꽃을 입 밖에 꺼내려다 참는다. 여자는 자기가 쌓아 올린 행복의 계단 맨 위에 있는 것이다.

“저는 정호승 시인 시가 제일 좋아요.”

그 말끝에 이화여대 수학과 출신이라는 토를 달면서 또 웃는다. 이런 때 웃는 웃음은 미역 줄거리라고 해도 좋겠다. 거기에서 풍기는 싱싱한 바다 냄새. 스쿠버 다이빙을 즐긴다는 말도 맞겠다. 여자가 바다 속 세상을

좋아한다는 말도 틀림이 없다. 같은 직장에 있는 남편이 구애를 한 것도, 그래서 몇 년씩, 늦는 아내를 위해 밤마다 잠들지 않고 불을 밝힌 채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런 보랏빛 바다 향기 때문이리라.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이 좋아서 MBC 방송 아카데미에도 다녔고, 다른 방송국에 있다가 이리로 왔다던가. 아, 방송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를 가르치는 봉사도 했었다고. 그게 팔자인가 보다. 남들이 좋고 편하게 늘 이쁜 모습 보여주고, 고운 목소리로 세상 일 고루 전해주고.



내 진실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슬픔으로 가는 저녁 들길에 섰다.
 낮선 새 한 마리 길 끝으로 사라지고
 길가에 핀 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내 진실로 슬픔을 어루만지는 사람으로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슬픔으로 걸어가는 들길을 걸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
 슬픔을 앞세우고 내 앞을 지나가고
 어디선가 갈나무 지는 잎새 하나
 슬픔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
 내 진실로 슬픔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으로
 끝없이 걸어가다 뒤돌아보면
 인생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저녁놀에 파묻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
 나는 다시 슬픔으로 가는 저녁 들길에 섰다.

〈정호승, 슬픔으로 가는 길-전문〉

음악회에 가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그보다 어서 빨리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방송에서는 우리 나라의 저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직 아기가 없다며 쌍둥이를 낳아야겠다고 웃는다. 그리고 또 휴가 떠난 동료 대신 뉴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나운서의 고충 같은 것, 몸가짐, 이미지, 세상사는 이야기, 요리하는 이야기, 사내에서 마주치면 어색해 하며 애써 피해가는(?) 남편 이야기.

그러다가 도중에 문득 정호승의 ‘슬픔으로 가는 길’을 꺼낸다. 이학(理學)을 했어도 이 국화꽃의 가슴 속 저 깊은 곳에는 이런 시(詩)가 바스락거리고 있는지. ‘새 한 마리, 지는 저녁 해, 갈나무 잎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 다시 슬픔으로 가는 저녁 들길’에서 비로소 여자는 다시 보라색 꽃 다발로 돌아와 앉는 것이다.

건강하다. 이상희 아나운서는 건강한 직업인이다. 화려하게는 보이지만 그냥 평범하고 근면한 직업인이다. 나리꽃일지도 모르는, 맑고 상냥하고 따뜻하고 고운 사람의 향기를 가진 검은 원피스의 여자다. 누가 노을 속을 걸어와 현관 앞에 가져다놓은 이 가을의 국화꽃, 거기서 나는 보랏빛 향기, 보랏빛 웃음소리다.

“저는 매일 인천 시민들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글 _ 김윤식(시인) · 사진 _ 김보섭(사진작가)

인천 책 독후감 공모

인천에 살면서도 인천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장면이 인천에서 시작된 음식인지 모르거나, 맵고 쫄깃한 쫄면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디서 처음 만들었나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듯이….

‘인천 책 서가 30cm 운동본부’에서는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천에 관한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을 공모한다. 인천에는 자랑거리도 많고 아픈 역사도 많다. 이러한 것들은 책을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다. 인천을 바로 알고 싶다면 인천의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이번 독후감 공모의 목표야 바로 그것이다.

별도의 공모 요강이 곧 공지될 예정이며 인천의제 21 홈페이지(www.iagenda21.or.kr)와 메일, 그리고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에서 직접 접수할 계획이다. (문의 440-1544)

전국 의제인들의 축제



1992년 유엔에서 제창한 지방의제 21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각 지역에서 지방의제 21의 추진이 활발해졌고 그 사이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각 지방의제 21 가족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축제를 여는 지방의제 21 전국대회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안면도에서 개최되었다.

지방의제 21이 각 지역에서 제법 자리가 잡힌터라 의제인 약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모여 각자의 지역을 위해 논의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일, 즉 아래로부터 시작된 거버넌스 운동인 지방의제 21이 그 동안 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이제는

공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다.

행사중 각 지역에서 시행된 우수사업들의 경연대회가 개최되었고, 앞으로 의제 21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장애우도 마음껏 공부하는 꿈

최근 들어 장애인이란 말 대신에 장애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몸이 불편한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벗처럼 여겨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 공부에 대한 욕구는 더욱 크다. 행여 남보다 조건이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많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기에는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모든 유치원과 학교시설은 일반인 위주로 설계되고, 교재와 교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장애우들이 마음껏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를 찾기 위하여 인천의제 21 사회복지분과가 나섰다.

장애 어린이가 있는 부모들을 상대로 이미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선진지의 장애 어린이 교육실태도 조사하였다. 내년에도 사회복지 분과에서는 계속 관련 논의와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열에너지 사용의 지혜



매년 일본과 우리나라는 강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태풍의 위력이 과거보다 훨씬 세졌다고 모두들 이야기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때문이라 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선 원유 값이 조만간 60달러를 넘어서 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름값이 현재보다 약 2배정도 비싸지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천의제 21 실천협의

회 자원순환분과에서는 인천의 자연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하여 지열에너지를 건물 냉난방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서구 공촌동의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약 1,000평을 오로지 지열만을 이용해 냉난방할 수 있는 시설을 오는 11월까지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60% 이상의 냉난방 운영비 절감이 목표이다.

자료제공 _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440-1544)



여성들이여 자신을 책임지자

글 _ 박지현 (인하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890 - 2270)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의 성문화가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피임은 여전히 터부시되는 문제로 남아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인공유산율에서 나타나는데, 매해 태어나는 아이가 70만 명인데 비해 인공유산 건수는 150만 건이나 되는 놀라운 숫자로 추정된다. 인공유산으로 인한 합병증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실제로 골반 내 염증, 자궁손상 등으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80%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피임방법별로 살펴보면 난관수술 24%, 정관수술 12%, 자궁내장치 13%, 콘돔 15%, 피임약 1.8%로 보고되고 있다. 기혼여성의 80%가 피임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유산율이 높다는 것은 선택한 피임법이 정확하게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약 40%가 불임수술과 같은 영구 피임을 선택하여 직장생활 등의 이유로 출산을 미루려는 젊은 부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각 피임법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과 신체상태에 따라 적합한 피임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Q & A

Q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불임이 되나요?

- 가임력과 피임약의 복용기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피임약의 복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의 가임능력은 감소하게 되고, 30대 중반 이후 더 빨리 진행되므로 가족계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Q 피임약을 복용하면 기형아를 낳는다는데요?

- 임신전의 피임약 복용이 태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서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피임약의 호르몬 성분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복용하는 주기 동안에만 작용을 나타냅니다.

Q 피임약을 복용하면 체중이 증가하나요?

- 현재의 저함량 피임약에서 체중증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큰 체중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2년 이상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Q 피임약을 복용하면 여드름이나 기미가 생기나요?

- 현재의 저함량 피임약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또한 '다이안느'라는 피임약은 여드름이 있거나 얼굴에 체모가 많은 여성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Q 피임약의 부작용은 없나요?

- 대부분은 증상을 느끼지 않지만, 일부 주기중간 출혈, 구토증, 유방 긴장감, 두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규칙적인 복용을 하면서 감소하는 일시적인 증상들이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콘돔을 사용하면 성감이 떨어진다는데...

-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콘돔을 사용하면 원치 않은 임신이나 성병 및 에이즈 감염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도리어 성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음경 귀두의 민감도를 감소시켜 조루증이 있는 경우에도 성행위지속시간을 연장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만약 성행위 중 콘돔이 찢어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즉시 세척기구(스포이드 또는 기타 대응물)를 이용하여 깨끗한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질을 세척하여 가급적 신속히 정액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응급피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Q 응급피임법은 어떤 것인가요?

- 콘돔이 찢어졌거나, 피임을 하지 못하고 성관계가 있었거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 등 응급 상황이었을 때 한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피임방법입니다. 응급피임법은 72시간 내에 두 번 복용하는 응급피임약과, 5일 이내에 자궁내장치(루프)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신을 75% 가량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정관수술을 하면 남성의 성욕이 저하되나요?

- 정관시술을 받은 후에도 남성호르몬의 분비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성의 여하한 신체적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즉, 남성의 2차 성징은 물론 성욕이라든가 성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성교 시에 정액(정자는 나오지 않음)도 제대로 배출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의학 전문가들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 440-2073)

추억속으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등등 떠다닐 때면 학교
운동장 가득히 펼쳐이던
형형색색의 만국기와 동
요가 울려 퍼지던 어린
시절 가을 운동회가 떠오
릅니다. 추억이 다가올

때 즈음이면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시끌벅적한 풍경을 만들었던 그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가 모일 수가 있었던 그날을 그려봅니다.

여름 내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운동회 날 선보일 무용이며 게임, 각종 운동경기 등을 연습하며 그날만큼은 비가 오지 않길 기도하며 밤잠을 설치던 친구들. 오래간만에 외출을 준비하며 어른들도 덩달아 신이 나던 그 시절. 어느새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나이가 되었고 사진 속의 소년도 서른 살이 넘어 겨울이면 아빠가 될 준비를 한답니다.

사진은 운동을 잘하던 저희 남편이 운동회의 꽃이라는 달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 집에 모였던 친구들과 어린시절을 추억하며 모두들 잠깐이나마 환하게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이제는 이런 풍경을 볼 수는 없지만 서른이 조금 넘은 저, 남편 그리고 친구들은 추억 할 수 있는 운동회가 있어 기뻐합니다.

우정숙 (서구 마전동)

운동회의 꽃

운동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초등학교 시절 교장선생님의 성함입니다. 김 풍자 운자. 성함 속에 바람과 구름이 들어있어서인지 운동회 날짜만 잡으면 비가 오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날짜를 잡으셨다는데 정말로 하늘은 높고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가을 날씨였답니다. 교장 선생님의 성함 때문에 비가 온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사실이 된거죠.

그날도 들뜬 기분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장애물경기, 사탕 찾아먹기 등 많은 경기가 있지만 뭐니 뭐니해도 운동회의 꽃은 달리기 아니겠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달리기 하나는 정말 끝내준답니다. 저희 자매들은 운동회가 끝나면 남들은 한 두권의 노트를 받아가지만 저희 엄청난 노트를 받아 왔답니다. 창백 계주까지 뛰어서 말이죠.



남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면 저희 자매들은 어깨에 힘주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요, 저희 딸은 저만큼 달리기를 못하네요. 아마도 아빠를 닮아서 그럴것지요? 며칠 후면 딸아이의 운동회가 있습니다. 우리아이에게 이 엄마의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겠네요. 응원해 주실거죠?

황금숙 (서구 가정3동)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학교는 학익동에 자리잡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남인천중고등학교다. 일년에 두 번 행사가 있다. 5월은 체육대회, 10월 달은 백암축제가 열린다. 늦게 배움의 길을 찾은 학생들이라 모든 것이 다 적극적이다.

5월 운동회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달리기, 릴레이 줄넘기, 피구 등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반 대항이다.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고 우리 반만의 독특한 응원도구와 춤으로 다른 반에 질세라 서로 경쟁을 한다. 나는 우리 반을 책임지는 오락부장이라 앞에 나가 응원가를 부르 땐 노래란 노래는 모두 부른다. 성인반 학생들이라 나이는 20대부터 70대까지 있다. 하지만 나이가 무슨 소용이래! 우리들은 고등학생인걸. 모든 것을 잊고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 체육대회를 마치고 우리 반은 반대항에서 결승까지 못가고 응원상만 탔다.

이제 10월 6일엔 백암축제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들은 교장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있다.

박순애 (연수구 연수1동)

자랑스런 우리아들

달리기 출발을 알리는 선생님의 호각소리. 운동장 가득히 만국기가 펄럭이고 맑고 푸른 하늘엔 뭉게구름이 두둥실. 태어나 처음으로 공식적인 경쟁에 참가한 우리아들!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앞을 쏘아보는 그 눈빛엔 꼭 1등을 해 엄마를 기쁘게 해아겠다는 어린 효심이 다분했다.

그러나 호각이 울리고 한참 전력 질주를 하는 중간... 이게 웬걸! 신고 있던 오른 쪽 운동화가 벗겨져 버린 것이다. 고학년쯤 되었으면 어떻게든 다시 신고 출발을 했을까,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 그것도 태어나 처음 운동회를 치르는 우리 아들에게겐 너무도 당황스런 일이었다.



달리기를 멈추고 서서 벗겨진 운동화 한 번 보고, 저 멀리 전력 질주 하는 친구들 한 번 보고, 어찌 할 줄 모르다가 울먹울먹 얼굴을 찡그리더니 기어이 울음을 토해냈다. 선생님이 달려왔고 자상스레 괜찮다 토닥여 주시며 신발을 다시 신겨 경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셨다.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함께 응원해 주던 친구들과 엄마들이 1등보다 더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다. 이에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는 우리아들!

우리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지금처럼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운동회를 통해서 배웠길 바라며 주위에 항상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친구와 이웃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

최현주 (연수구 청학동)

지령을 수행하라!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하였는데
쪽지 안에 적혀있는 지령을 수

행하며 달리는 것이었다. 나는
'혹시 어려운 것이 걸리지 않

을까?' 라고 생각하며 총소리에 막 뛰었다. 나는 저쪽 끝에 있는 종이를 잡았다. '운동회 진행순서표'. 그것을 본 순간은 당황했지만 곧 바로 선생님께 달려가 어렵지 않게 진행순서표를 들고 뛰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결승선 앞에서 서 버렸다. 나는 그 덕에 3등을 하게 되었고 손에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아이가 궁금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개 교장선생님 나왔는데 교장선생님이 없어서 멈춘거잖아"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교장, 교감선생님이 나온 아이들은 모두 3등 안에 들지 못했다. 그리고 매우 속상해서 "나오지도 않을 분들은 뭣하러 적은거야?"하며 화도 냈다.

달리기를 완주하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도장을 받아서 정말정말 미안했던 운동회였지만 내 평생 못잊을 달리기가 되었다.

송세진 (연수구 옥련동)

유치원 운동회

천고마비의 가을. 몇 년 전 작은아이 운동회를 회상해본다.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점심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 학



교 운동장에 도착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앉아 응원과 함성을 지르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워했다. 우리가족도 함께 동요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걱정을 털어버렸다.

점심을 먹고 아빠들의 100m 장애물 넘

기가 있었는데 유치원운동회라서 그런지 자기하면서 코믹한 그런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 남편은 1등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이 있는 미소로 어머니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당당하게 출발선에 서 있었다.

출발소리와 함께 우리가족은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는데... 남편은 그만 (아줌마)똥배 바지를 입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한쪽 바지에 두발을 넣고 일어나려는 순간 뒤로 넘어져 잠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 웃음을 뒤로하고 끝까지 끝인 지점에 도착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마음 같이 안 되네"라고 어머니 앞에서 아이 된 것처럼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행히 작은아이는 달리기에서 1등을 해 뿌듯함과 즐거움을 간직하고 운동회를 마친 다음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해질녘 가을하늘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달 중순쯤에 작은아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고 요즘 매일 공부연습을 해 기대가 된다. 운동회 날 나도 100m달리기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니 가족들은 모두 말린다. (꼴찌해서 창피 당한다고.....)

김미영 (남구 주안2동)

다음 달 테마는

‘가을여행’입니다

'가을여행'에 얽힌 글(200자 원고지 3매 이내)과 가을 여행의 멋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첫 운동회

지난 가을 우리 아이 첫 운동회 때 모습입니다. 낯설었는지 오전 내내 울며 매달리다가 그동안 연습했던 장기자랑 순서 때는 너무도 열심히 잘해서 우리 부부 감동했습니다. 옛 기억을 떠올리며 어른들이 오히려 더 즐거워했던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경숙 (계양구 병방동)



신랑이 맘에 안들어~

운동회 날 1학년 병아리들은 꼭두각시 춤을 춘다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신랑이 맘에 안된다고 내내 투정 이던 아이가 당일 날은 아주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참 귀엽죠!
이수경 (서구 검암동)



엄마의 리얼 상황

이 사진은 1985년 제가 유치원 다닐 때의 가을 운동회입니다. 어머니들의 장애물 달리기에 저희 어머니도 출전을 하셨죠. 장애물이라봐야 달리다가 사다리 구멍을 기어서 통과하는 아주 간단한 경기였죠. 가운데 고개 속이신 분이 제 어머니인데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신지 아시나요? 이유는 바로 사다리 구멍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조금 과체중이신데 덩치에 비해 구멍이 턱없이 작아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죠. 어머니 구멍 여기저기를 시도하시다가 사다리의 제일 밑 부분 구멍이 커서 몸을 비집고 겨우겨우 통과를 하셨습니다. 달리기 결과는? 물론 꼴찌 하셨습니다. 그때는 똥똥한 엄마가 창피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김현정 (남구 주안6동)



20년전 구월초등학교 운동회

빛바랜 사진 속의 내 모습. 구월초등학교 운동장... 문득 떠오릅니다. 벌써 20년 전이네요.
이재화 (서울시 강서구)



행주치마 응원단

‘이겨라, 이겨라’. 교회 체육대회에서 행주치마 복장을 한 ‘아줌마 치어리더’들의 열렬한 응원모습이랍니다.
조예진 (동구 송현동)



나는야 응원단장

1986년으로 기억됩니다. 응원단장 한다고 매일 연습하던 그때. 의상 만들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던... 제 옆에 있던 이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보고 싶다 친구야.
이상화 (부평구 청천2동)

올 아빠 초등학교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빠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와 사이가 서먹해지다가도 이 사진을 보면 순수했던 그때가 상상이 돼서 마음을 열게 돼요. 부평 초등학교를 다녔던 아빠는 매일 연수동에서 부평의 학교를 걸어 다니셨대요. 그래서 저렇게 다리가 얇은가?
이슬아 (계양구 작전동)



어릴적 운동회

이사진은 제가 31년전인 영화국민(초등)학교 2학년때 인천 공설운동장을 빌려 운동회를 하며 달리기 준비를 하는 사진입니다. 가운데 폼나게 준비를 하는 놈이 본인이고요 양쪽 끝에 서있는 두 놈은 미국에 살고요 가운데 놈은 지금도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멀리 인천 실내 체육관이 공사중인게 보이고 광성 고등학교도 보입니다. 그나저나 선생님들은...
이영길 (연수구 연수1동)



달려라 달려~

지금부터 30년전 축한국민(초등)학교에 다니던 우리딸의 가을 운동회 사진입니다. 그 때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운동회를 했는데 1학년이라고 달리기도 세발자전거 달리기로 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이 이제 사진 속 아이만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정운산 (부평구 산곡동)

아들 운동회 때

얼마전 이제 5살된 아들 유치원 운동회가 있었답니다. 아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신났다고 남들이 그러더군요. 100m 달리기도 하고 신나는 게임도 해서 상품도 타고 맛있게 집에서 챙겨온 도시락도 먹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운동회 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아들 운동회에 오니 기분이 새롭더군요. 아이 아빠가 바빠서 가족끼리 얼굴보기도 힘들었는데 덕분에 우리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운경 (부평구 삼산동)



꼭두각시 춤 추는 아들

초등학교 입학하고 처음 열린 운동회. 운동회에서 빠질 수 없는 1학년의 꼭두각시 춤.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춤추는 아들의 모습에 모두 반했답니다. 항상 그 웃음 간직하며 생활하길...
최유림 (남동구 간석2동)



운동회날 가족사진

벌써 20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송현초등학교에서 문학초등학교로 전학해서 치른 첫 운동회 날. 저렇게 모이긴했지만 한 명이 빠졌습니다. 1학년이던 우리 막내 이상재가 빠졌습니다. 통달 사준다는 친구 부모님을 따라가서 완전한 가족사진이 되지는 못했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던 사진중 달랑 2장 중 1장이지요.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초등생을 둔 학부모가 됩니다. 저 부모님 자리에 제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 가슴이 찡합니다. 남매를 두고 이렇게 시간이 없고 힘이 든데 4형제를 키우신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어땠을지 이제 좀 알겠 같습니다. 그때 철없이 뭐 사주지 않는다고 심술부린 것이 가끔은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맘이가 그랬으니 참 속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두 성장하고 보니 형제가 많은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복적거림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묵 (서구 연희동)



운동회때 이런거 해 보셨어요?

큰아이 유치원에서 열린 운동회.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갓난아기까지 모두 모였지요. 엄마 아빠가 나무그네에 아이를 태워서 한바퀴 돌고 그 다음 가족에게 그네를 넘겨주는 경기인데 너무너무 즐거워서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아가 한 번 더 태워 달라고 하는 통에 우리 팀이 지고 말았지만 엄마 등에 업혀있던 아기도 좋아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윤승환 (연수구 동춘2동)

마음 따로 몸 따로

왕년엔 내가 족구 좀 했는데... 어휴~ 내 다리 찢어지겠네.
심지원 (연수구 동춘동)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빠들이 소프트볼 야구경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포수 마스크를 써 보았어요. 멋지죠? 근데 그것을 쓰고 보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홍석표 (경기도 성남시)



건강 및 의료고충 상담하세요

- 신청방법 : 가까운 공단지사에 유선 및 방문, 인터넷
- 건강상담 : 음주, 운동, 식이, 비만 등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대한 상담 (공단 일산병원 전문의 답변)
- 의료고충상담
 - － 진료비 적정 확인 및 보험급여 적용 여부(급여, 비급여)
 - － 요양기관 이용 불편 절차
 - － 의료피해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

인천예술문화교실 무료수강생모집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가 주최하는 ‘2004 인천예술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대상 : 제한 없음
- 강의기간 : 10월 4일 ~ 12월 24일 (주 2회 총 48시간 수료후 수료증발급)
- 접수기간 : 9월 13일부터 선착순 마감 (각 과목별 25명)
- 장소 : (사)인천예총 수봉문화회관
- 접수방법 : 수봉문화회관 2층 사무처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강좌과목 : 댄스스포츠, 비쥬, 쿼트, 홈스케치

문의 _ 인천예총 사무처 (남구 송의4동 7-4 수봉문화회관 2층, 868-7196, 873-5174 팩스 : 872-5551 www.artin.or.kr)

인하대병원 무료건강공개강좌

- 일시 : 10월 27일(수) 15:00 ~ 16:00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유방암
 - 강사 : 외과 조영업 교수
- 아울러 10월 20일 ‘간의 날’을 맞아 간질환 전문의를 모시고 일반인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10월 21일(목) 14:00 ~ 17:00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합니다

- 특별감시·단속기간 : 2004. 9. 9~ 10. 6
 - 중점감시·단속대상 위법행위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하 ‘정치인 등’이라 함)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이용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행위
 - －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
 - －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10·30 재·보궐선거 관련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 문의 _ 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주민감사청구제도 안내

우리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청구절차 : ① 주민감사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② 내용공표(즉시)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시장) → ③ 청구인명부작성 및 제출 → ④ 청구인 명부열람(7일간) 및 이의신청(14일 이내 심사결정) → ⑤ 구 요건 심사(심의회) → ⑥ 감사실시(60일) → ⑦ 감사결과 통지 및 공표
- 감사청구 주체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주민수 300인 이상의 연서로 증명서 교부 후 6월이내, 서명 후 10월이내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주민수 200인 이상의 연서로 증명서 교부 후 3월 이내, 서명 후 5월 이내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 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간의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14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감사실시 : 감사기간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료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 연장시 청구인 대표자와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공표합니다.
- 감사결과 처리 :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표합니다.

문의 _ 시 감사관실 (440-3135)

터미널시네마 <꽃피는 봄이 오면> <쌈> 상영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터미널시네마에서는 9월 23일부터 <꽃피는 봄이 오면>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15일부터는 <쌈>을 각각 상영합니다. 상영 프로그램은 극장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관람요금 : 일반 6천5백원, 학생 5천5백원
- 주차편의
 - － 남측·서측의 터미널 직영 주차장 : 50%할인
 - － 동측·지하의 신세계 주차장 : 백화점 구매영수증 소지자 무료

문의 _ 터미널시네마 (430-7374, 7377)



• 강좌내용 및 강사

- ① 바이러스성 간염의 관리
 - － 이진우 교수(인하대병원)
- ② 간암의 조기진단과 치료
 - － 이정일 교수(인하대병원)
- ③ 간질환 환자의 식이요법
 - － 임현숙 영양사(인하대병원)

참석자에게 무료 주차권을 발급합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890-2224)

RCY 동문을 찾습니다

학창시절 RCY란 이름으로 함께 했던 시간들. 그 푸르른 날들의 추억을 간직하시나요? 까까머리에 검정교복을 입었던 세대는 JRC로, 또는 RCY로 학창시절을 보낸 동문을 찾습니다.

- 대상 : 인천에서 학창시절 JRC 또는 RCY로 활동하신 분(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사회인)
- 연락처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청소년본부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사회인)
 - ※동문의 밤 행사가 10월 23일 경에 개최될 예정이며 동문주소록이 작성되는 대로 행사일정을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문의 _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청소년본부 (810-1320~2 / E-mail : rcy04@redcross.or.kr)

Youth festival-발산II가 열립니다

청소년동아리 건전 문화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Youth festival-발산II’에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과 함께 할 청소년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 공연일시 : 10월 30일 오후 4시
- 공연장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5층 대강당
- 대상 : 댄스 또는 락 청소년 동아리, 전시가 가능한 청소년 동아리
- 초청공연 : 블랙홀
- 등록절차 : 방문접수 받음

문의 _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762-7942, 2642)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 기념 공연



‘이든홀’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전시시설은 대전시실(164평)과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전용 전시시설인 어린이전시실(22평)이 있고 내년에는 75명의 갤러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개관 축하 공연으로 플루티스트 김동수 초청 독주회 등이 열립니다.

10월 7일(목)	10월 8일(금)	10월 9일(토)	10월 10일(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 플루티스트 김동수 초청 청소년을 위한 플루트 독주회	저녁 7시부터 8시 30분 청소년 음악회	저녁 7시부터 8시 30분 브라스 퍼포먼스가 있는 ‘퍼니밴드’ 연주회	오후 2시부터 5시 Power Start Festival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777-9140~8)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및 검찰, 경찰 등과 합동으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8대 민생침해 사범은 중점 단속합니다.

1.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 －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 － 협박, 폭행, 해괴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 고배당을 미끼로 하는 유사금융 사기 사범 등
2. 취업사기 사범
 - － 청년실업자·대졸자 등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
 - － 고교·대학생 아르바이트 급료 체불·횡령 행위
 - － 취업미끼로 확보한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3.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 － 기업·단체에 물품·용역 납품권을 강취, 폭리를 취하는 기업형 폭력사범
 - － 노점상, 유흥업소, 상가 등에 대한 보호비 명목의 갈취행위 등
4.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 － 불법 가입비 수수 또는 불량물품 고가판매 후 업체폐쇄 행위
 - － 불법 다단계 판매망 조성 등 사기행위
 - － 매점·매식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탈세 행위
5.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 － 불법 사행성 조장 시설 오락실·경마·카지노 개설 및 운영 행위
 - － 전문 조직단에 의한 사기도박 사범 등
6. 교육관련 불·탈법 행위사범
 - － 학습부교재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
 - －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운영 행위
 - － 고액 개인과외 및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 앞선행위

7. 국민건강 위해 사범

- －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 －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 사범
- － 건강보조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행위

8.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 － 위장전입, 불법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무허가 토지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 －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개발 분위기에 편승 등 부동산 투기조장·사기 행위
- －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부동산 사기행위 등

시민제보접수 전담창구 _ 시 경제정책과 (440-2792~4)

인천시 학생디자인 경진대회 열립니다

우리는 디자인분야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유능한 디자인분야의 영재들을 조기 발굴하고자 ‘2004 학생대자인 경진대회’를 엽니다.

- **일시** : 10월 14일(목) 10:00~15:00
- **참가대상** : 우리시의 초·중·고 재학생
- **참가부문** : 기초디자인, 조형디자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실내건축디자인, 웹디자인
- **원서접수** :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편, 방문, 인터넷, fax로 접수
- **시상내역**
-최우수상(초·중·고등부 각 1명 상당 및 해외연수) 외 우수상, 특선, 입선 등
-공통 : 지도교사상, 최우수지도교사상, 단체상

문의 _ 인천디자인고 실업부
(561-4638, fax : 561-0296)

인천지역 자활대회 열립니다



올해로 두 번째 인천지역 자활대회가 열립니다. 우리시의 후원으로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 주최로 열리는 자활대회는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인천지역 전체 참여자가 함께 어울리는 대동 한마당 잔치입니다.

- **일시** : 10월 28일 (목) 10:00~16:00
- **장소** : 인천시립체육관(도원동 소재)
- **참여대상** :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및 실무자 전원. 약 1,000명
- **행사내용** : 1부-기념식, 2부-후견기관 별 장기자랑, 3부-단합의 한마당
- **행사장 주변** : 후원기업 현수막 비치, 후견기관별 상품전시

문의 _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인천지부 (422-3178),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437-4052)

2004인천하늘축제 행사일정

구 분	행 사 명	장 소	D-30	15(금)	16(토)	17(일)
공식행사	2004 인천하늘축제 개막식	인천국제공항		◎		
	2004 인천하늘축제 폐막식	월미도(해사고)				◎
SKY Festival	여행사진 및 항공관련 사진 공모전		◎	◎	◎	◎
	하늘탐험 별자리 여행	월미도		◎	◎	◎
	비행기 타고, 하늘 보고, 인천 보고	송도경비행기장		◎	◎	◎
	인천시장배 어린이 사생대회	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공사장배 모형비행기 날리기 대회	인천국제공항				◎
Culture Festival	SBS 특집방송 I Love Sky Concert	인천국제공항		◎		
	폐막식 특집방송 하늘사랑음악회	월미도(해사고교)				◎
	월드오페라센터 창립기념 음악회	인천국제공항			◎	
	하늘사랑 나눔장터	인천국제공항				◎
	하늘사랑 청소년 Festival (댄스경연 대회)	월미도(문화의 거리)			◎	
	청소년 금연 마라톤대회	문학경기장				◎
	아름다운 인천찾기	월미도(문화의 거리)				◎
	수도권지역 청소년 현장탐방			◎	◎	◎
	불꽃축제	월미도				◎
	국제물류 컨퍼런스	하얏트호텔	◎			
World Festival	Sky Plaza	인천국제공항		◎	◎	◎
	국제 청소년 관광회의	하얏트호텔			◎	
	테마탐방	인천시 일원			◎	◎
	국제 Sky Queen 선발대회	인천국제공항				◎
	Welcome Concert	인천국제공항			◎	◎

문의 _ 시 항만공항지원과 (440-3372)

중국의날 축제 행사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10월 8일 (금)	19:00~19:30	제 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기념식	인천대공원
	19:30~21:30	제 6회 한중 가요제	
10월 9일 (토)	11:00~18:00	중국문화체험행사(공예, 전통무술, 자장면)	자유공원
	13:00~14:00	웅춤·사자춤 퍼레이드, 줄타기공연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14:00~15:00	북청사자 놀음	자유공원 특설무대
	15:00~18:30	제 1회 국제 웅춤·사자춤 대회(1일차) (8개국 경연)	
	18:30~19:30	남사당 놀이	
10월 10일 (일)	19:30~21:00	중국예술단 초청공연(위해시·천진시) 사자춤·웅춤 공연	자유공원
	11:00~18:00	중국문화체험행사(공예, 전통무술, 자장면)	
	12:00~13:00	웅춤·사자춤 퍼레이드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13:00~14:00	은울탈춤 공연	자유공원 특설무대
	14:00~17:30	제 1회 국제 웅춤·사자춤 대회(2일차) (8개국 경연)	
	17:30~18:30	범패와 작법무 공연	
	18:30~20:00	중국예술단 초청공연(위해시·천진시)	
	20:00~21:00	제 1회 국제용사대회 시상식 및 수상팀 폐막공연(사자춤, 웅춤 공연)	
	부대행사	11:00~21:00 전시행사(인천화교 100년 사진전)	중구문화원

문의 _ 중구문화원 (441-5539, www.inchinaday.com)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행사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10월 29일 (금)	13:00~14:00	-유소년사생대회 심행시글짓기	문화의거리
	14:00~15:00	-합합공연,치어리더공연, 빼єю로, 요술풍선	
	15:00~16:00	-째저싸이저,마칭밴드	
	16:00~17:00	-중국기예단	
	17:00~18:00	-라인국악공연,마술쇼	특설무대
	18:00~19:30	-난타공연,세계민속공연	
	19:30~20:00	-대북공연(특별초청공연)	
	20:00~20:30	-개막식	
	20:30~20:40	-불꽃쇼	
	20:40~22:30	-이규석의유쾌한오후4시	
10월 30일 (토)	22:30~23:00	-프리마켓락공연	특설무대
	13:00~14:00	-맥주빨리마시기	문화의거리
	14:00~15:00	-에어로빅,라틴댄스공연, 빼єю로요술풍선	
	15:00~16:30	-합합경연대회 및 시상식	
	16:30~17:30	-어린이째즈 및 에어로빅공연	
	17:30~18:30	-중국기예단공연	특설무대
	18:30~19:00	-북한예술단공연	
	19:00~20:00	-세계민속공연	
	20:00~21:30	-오종철의 팡팡90.7(공개방송)	
	21:30~22:00	-뷰렛 락공연	
10월 31일 (일)	11:00~13:00	-열전기수왕 리하설	
	13:00~15:00	-열전기수왕 녹화방송	
	15:00~16:00	-유진박공연,70/80라이브공연	
	16:00~17:00	-세계민속공연 및 중국기예단	
	17:00~17:30	-폐막식	
부대 행사	13:00~22:00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추억의 사진찍기, 가훈써주기, 먹거리마당, 어린이인형 및 마당놀이, 전시관	문화의거리

문의 _ 중구 문화체육팀 (760-7133)

노동문화제 행사일정

구 분	일정별 행사구성					
	10/1~5	6(수)	7(목)	8(금)	9(토)	10(일)
노 래					노동하는기타	
연 극		2004, 노동연극제				
		꽃등들어 님오시면	워크샵공연	호랑이이야기		
미 술	2004, 노동미술굿					
풍 물						풍물대동굿한마당
영 상					열린영화제	
문 학					그 고개 넘고 온 사람들	
거리공연					거리공연	
사 이 버	사이버 영상콘테스트 ‘시선나누기’ / 사이버 노동미술굿					
단체부스					참여로 허무는 벽	
체험마당					예술놀이터	

문의 _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446-8479, www.ilcf.co.kr)

연안어시장축제 행사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10월 9일 (토)	09:00~12:00	-일년풍어를 비는 세경돌이	어시장내
	12:00~13:00	-서해안풍어제	메인무대
	13:00~13:30	-개 막 식	
	13:30~15:00	-장어달리기	어시장주변
		-바지락빨리까기	
	15:00~17:00	-얼음위에 오래서있기	메인무대
		-어시장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17:00~18:00	-레크레이션	
	18:00~19:00	-범패공연	
	19:00~20:00	-사머니공연(인도)	
	20:00~21:00	-사머니공연(러시아)	
	21:00~22:00	-사머니공연(인도네시아)	
	22:00~	-폐막	

문의 _ 중구 문화체육팀 (760-7133)
연안어시장축제추진위원회 (888-4241)





계양산축제 행사일정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전야제	젊음의 음악 축제	10. 4 19:30~21:00	경인교대 운동장
본행사	정조대왕 어가행렬 재연	10. 9 10:30~14:00	야외공연장
	구민 노래자랑대회	10. 5 18:30~21:00	야외공연장
부대 행사	인라인스케이트 대회	10.16 15:00~	야외공연장
	계양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10.19 19:00 ~	계양문화회관
	계양미술협회 도자기 체험마당	10. 9 ~10.10	야외공연장
	계양심포니오케스트라 기열맞이 정기연주회	10.24 19:00~	계양문화회관

문의 _ 계양구 (450-5114)

소래포구 축제 행사일정

구 분	일정시간	10월12일(화)	10월13일(수)	10월14일(목)	10월15일(금)	
메인 무대	14:00~15:00	소래포구 뽕어제	소래포구 일원 - 길놀이 공연 어린이 인형극		남동만만세 (주민자치센터경연 1부)	
	15:00~16:00	아줌마 퍼포먼스페스티벌			정선군 초청공연	
	16:00~17:00				남동만만세(주민자치센터	
	17:00~18:00	개막퍼레이드	남동구 우리노래 부르기	소래포구	경연 2부 및 시상식)	
	18:00~19:00	개막식	합창 경연대회	아줌마 선발대회	폐막식	
	19:00~21:00	개막축하공연 SBS 특집공개방송	7080 Concert	로맨틱콘서트	폐막공연 소래콘서트	
	21:00~21:30	불꽃놀이			불꽃놀이	
참여행사장	16:00~18:00	수산물이벤트행사 (외국인젓갈담그기, 새우젓 높이쌓기, 젓갈 정량 달기, 생선회 예쁘게 빨리뜨기 등) 수산물 깜짝경매 (소래포구 위판장)				
	13:00~20:00	시민참여행사 (어린이 입체영화관, 전통놀이 체험마당, 물 풍선 던지기, 유아 놀이존, 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캐릭터 풍선 나눠주기)				
축제행사장 일원	기간 중	소래포구 관광투어, 소래포구 축제 사진촬영대회, 시민 모니터링				
소래포구 수변무대	18:00~20:00	돌발 퍼포먼스	Blue Concert			
소래포구 앞바다	13:00~17:00	선상 망둥어 낚시대회				
판매행사장	12:00~21:00	소래포구 특산물, 먹거리 장터 상설운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관 운영• 전시 및 판매행사 (12~15일 상설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래포구 특산물 전시관 운영-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 (보령시, 정선군)• 행사기간 중 할인판매 운영 (젓갈, 수산물, 음식)				

문의 _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 (423-1901, www.soraefestival.com)

사업 고민 좌~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기간: 오프라인: 2004년 10월 16일(토) 10:00 ~ 18:00
온 라 인: 2004년 10월 11일(월) ~ 10월 31일(일)

■행사URL: <http://insilver.humanpia.com>

■참가방법: 구직 전화접수 032)886-7552 및 현장접수
구인 전화접수 및 (<http://insilver.humanpia.com>)을
통한 사전접수

■참가비용: 무료

■참가대상: 인천광역시 관내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남/여

■참가기업: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 및 기관

■행사내용

채용관

- 공공부문채용관
- 일반채용관
- 노인취업지원관

테마파크

- 취업계시판
- 실버힐터 및 도서관
- 고용지원 위한 서비스 및 상담관 · 취업센터

문화행사

- ▶ 국악인마당 (사회자:윤광희)
- 경기민요공연
- 고전무용인마당
- 실랑고 공연 등
- ▶ 실버가요제 (사회자:김정남)
- 국내 장성금 트로트 가수 공연 (김혜연 씨)
- 댄스스포츠공연

상설프로그램

- 무료 이미용 봉사
- 무료건강검진 및 치매상담 등

▶ 문 의 : 인천노인취업박람회추진기획단 032)886-7552
인천광역시청 사회복지과 032)440-2676

●주 최: 인천광역시
●주 관: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노인취업박람회추진기획단
●후 원: 보건복지부 노동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IBSC 인천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LG건설 X자이 Humanpia JOBKOREA.co.kr 인천방송 LOTTE인천점

대한신경과학회, 국민연금관리공단 삼성안과

새로운 인생을 일자리와 함께!!

2004 인천 Silver 일자리 박람회

인천중소기업 제품종합전시장 2004년 10월 16일(토) 10:00 ~ 18:00
(인천지하철 동춘역 1번 출구 이마트 옆)

